



문화관광
탐험대의
광주견문록Ⅴ



문화관광탐험대 새로운 광주를 탐하다

2015년 한 해 동안 광주 곳곳을 누비며 새로운 장소, 새로운 이야기를 찾았던 문화관광탐험대가 다섯 번째 광주견문록을 내놓았습니다.

더 이상 광주의 새로움은 없을 것만 같았는데, 발로 뛰고 마음으로 다가서니 새로운 광주가 있었습니다. 새로이 길을 내는 이의 심정으로 광주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광주천, 영산강 물길 따라 광주를 걸으니 오래된 역사가 되살아났고, 호남선 KTX 철길 따라 광주를 걸으니 울고 웃던 기차역이 있었습니다. 광주의 오래된 풍경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았고, 오월 공간과 마을에서 의향 광주를 이끈 이들을 만났습니다. 탐험대원들 모두 아는 만큼 보고 보는 만큼 느낀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다섯 번째 광주견문록은 문화관광탐험대의 탐험일지를 7개 테마인 우리 도시 광주의 도시와 삶을 만나다, 물길 따라 광주를 걷다, 오월 그 정신으로 서다, 박물관 그 공간과 시간의 탐험, 세월 따라 뜨는 역 지는 역, 무작정 시간여행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마을에서 역사를 만나다로 엮었습니다. 건성으로 알고 있던 광주를 제대로 만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탐험대의 발길 따라 여러분도 새로운 광주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광주문화재단은 내년에도 광주 탐험을 이어가며 지역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소중한 장소와 문화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문화관광탐험대가 되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영진



다섯 번째 광주견문록을 내놓으며

12월의 문턱에서 광주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다닌 날들을 돌아봅니다.

처음 마음으로야 인생 최대의 역작을 내놓고 싶었는데, 세상일이란 참 맘대로 되지 않음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광주탐험을 처음 시작하던 그때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고 힘들수록 더욱 큰소리로 허허 웃으며 한 걸음을 더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다섯 번째 광주견문록이라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번 광주견문록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광주와의 만남을 선사하길 바라고, 문화관광탐험대원들에게 그랬듯 여러분에게도 광주가 ‘오메~ 징하게 좋네’하고 외칠 수 있는 곳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명 문화관광탐험대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광주견문록 편집 과정에 적극 참여해주신 김미정, 김종윤, 서연정 대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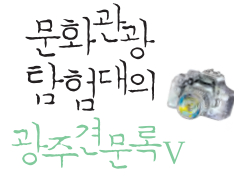
제5기 문화관광탐험대장 한진수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마르셀 프루스트

CONTENTS



01

우리 도시 광주의 문화와 삶을 만나다

- 18 익숙한 일상을 뒤흔든 도전 광주폴리I
- 22 담론을 촉발시키는 무대 광주폴리II
- 26 문화가 일상이 되는 곳 동명동
- 30 영혼으로 노래한 비가(悲歌)의 왕자 김정호
- 34 광주정신으로 빛은 예술공간 메이홀 & 이매진
- 38 여기 광주와 부산 하나요 0518
- 40 어디서든 노래꽃 피우는 사람 가객 정용주
- 44 다시 태어난 역사의 장소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 48 광주사람 모두의 평안을 비나이다 광제사
- 52 147만 광주시민의 꿈이 숲이 되다 광주광역시청 시민숲
- 56 여기가 바로 지구촌 광주국제교류센터
- 58 기막힌 광주풍경을 한눈에 사직공원전망대

02

물길 따라 광주를 걷다

- 62 광주 시민의 삶을 따라 흐르다 광주천
- 66 물 귀한 광주의 보물 수원지
- 70 광주가 품은 영산강 극락강
- 72 세상 온갖 것들이 드나들던 역사의 현장 나루
- 76 물길의 끝에서 광주의 중심 찾기 광주광역시 통합기준점

03

오월, 그 정신으로 서다

- 80 그 날의 역사를 기억하라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 84 30년 만에 돌아온 5.18의 상징 5.18 시계탑
- 88 님을 위한 행진곡을 찾아서
- 92 80년 5월의 천국과 지옥 옛 국군광주병원 & 505보안부대
- 96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보다 전남대 5.18기념관
- 100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기억해주소서 김희용 목사
- 104 새로운 오월을 여는 중심 5.18기념공원
- 108 생생한 역사체험의 현장 5.18자유공원

04

박물관은 우리의 거울이다

- 114 자유와 주권을 외쳤던 그녀들의 역사 학생독립운동 여학도기념 역사관
- 118 오감으로 즐기는 남도의 맛과 멋 남도향토음식박물관
- 120 요것이 다 보물이여 평동생활역사유물전시관
- 124 소박하면서도 알찬 카메라 컬렉션 세계카메라영화박물관
- 128 머리모양에 담긴 비밀 찾기 한국미용박물관
- 132 대한민국 정보통신의 미래를 품다 장항남정보통신박물관

05

세월 따라 뜨는 역, 지는 역

- 138 이번 정류장은 광주의 관문 광주송정역
- 140 100년의 광주 철도 역사 읽기
- 142 사라진 기차 행선지로의 초대 운암역
- 144 사라진 기차 행선지로의 초대 남광주역
- 146 역의 또 다른 의미를 아시나요 경양역 & 선암역

06

무작정 시간여행,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 152 시대가 가니 거리도 가네 나무전거리
- 156 20년 만에 돌아온 광주 대표 관광지 지산유원지
- 160 광주 안의 작은 중국 광주화교학교
- 162 지역민이 세운 광주 최초의 교회 삼도교회
- 164 평범한 농가 일상에서 비범함을 보다 김봉호 가옥
- 168 지역의 아픔을 보듬은 하느님의 집 북동성당
- 172 세계 1위 대한민국을 키운 전통 국궁장

07

마을에서 역사를 만나다

- 178 당연한 도리는 배움에 달려있다 유애서원
- 182 두문불출의 유래를 품다 화담사
- 186 정조가 극찬한 최고의 시인을 만나다 송호영당
- 190 의리가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 윤리사
- 192 가난할수록 더욱 즐겨야 한다 낙암정
- 196 덕산에서 만난 동학지도자 손화중
- 198 죽봉로에 선 한말 의병장 김태원
- 202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명당 삼릉단
- 206 향토사는 지역이라는 나무의 뿌리다 류복현

01

우리 도시 광주의 문화와 삶을 만나다

매년 수억 명의 관광객들이
유럽의 도시를 찾고, 또 다시 찾는 이유는
그 나라의 전통음식과 술을 맛보고,
춤을 보고, 싼값으로 명품을 쇼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도시에 보존된 역사적 장소에
조상들의 삶이 현재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에서만
진정한 그 나라만의 문화와 삶을 만끽할 수 있으며
미래를 향한 삶의 힘이 내재된 영원불멸의 도시가 될 수 있다.

테오도르 폴 김의 사고와 진리에서 태어나는 도시 중에서

익숙한 일상을 뒤흔든 도전

광주폴리I

2011년 광주 도심에 낯선 조형물이 속속 들어섰다. 도시 가로변에 등장하기도 하고, 충장로 상점가 한가운데 자리 잡기도 하고, 금남로 지하도 입구를 둘러싸기도 했다. 우리 도시의 익숙한 공간을 낯설게 만들어버린 스펙터클은 광주폴리(Gwangju Folly)였다.

2011 광주비엔날레 승효상 총감독은 프랑스 라빌레뜨 공원에 설치된 폴리가 방문자와 공원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낸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도심공동화로 활력을 잃은 광주 구도심에 강력한 문화적 힘을 전달할 매개로 광주폴리를 선택했다. 내로라하는 세계적 건축가들이 광주폴리 제작에 참여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고, ‘광주읍성’의 장소성을 토대로 한 독창적인 조형물 11개가 도심 곳곳에 설치됐다.



열린 장벽 / 정세훈·김세진 作

익숙한 도시에 등장한 낯선 볼거리에 대한 시민의 반응은 엇갈렸다. 낙후된 도심 풍경을 변화시킨 세계적 건축가들의 스펙터클에 열광하는 이들도 있었고, 상가 간판을 가리는 폴리 때문에 장사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도 빗발쳤다. 결국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광주폴리 설치 계획에 수정이 가해졌고, 충장로 파출소 앞에 설치된 피터 아이젠만의 ‘99칸’은 건축가가 의도했던 스펙터클을 잃어버렸다.

2011년 당시 광주폴리의 등장은 익숙한 공간을 뒤흔드는 새로운 문화적 시도였고, 이로 인해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4년이 흐른 지금 광주폴리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문화관광탐험대의 현장 탐험 결과, 광주폴리는 광주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도시조형물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었다. 문화탐험대가 선정한 광주시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폴리는 광주세무소 앞 가로변에 설치된 ‘열린 장벽’이다. 등장 초기에는 폴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조명이 장사에 방해된다는 민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180도 달라졌다. 시끄럽고 정신사나운 것이라 여겼던 열린 장벽의 음악과 조명은 자주 접하다보니 익숙해졌고, 언젠가부터 상인들이 지루한 일상을 이겨내는 활력소가 되었다.



광주 사람들 / 나데르 테라니 작

금남로공원 앞에 조성된 ‘유동성 조절’도 등장 초기에는 운전자들로부터 짜늘한 눈총을 받았으나 금남로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조형물로 재평가되고 있다. 중앙초교 앞에 설치된 ‘광주사람들’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원래 대나무로 제작하려고 했던 구조물이 철재구조가 되면서 호불호가 갈렸는데, 멀리 떨어져서 볼 때와 달리 안에서 올려다보는 아름다움이 입소문을 타면서 누구나 한번쯤 고개를 들어 쳐다보게 되는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문화는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며 성장해왔기에 오래된 익숙함이나 편안함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작정 새로운 것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보다 열린 마음으로 문화적 시도를 받아들이고, 창조적으로 활용하며 즐길 때 광주의 문화, 대한민국의 문화는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잠망경과 정자 / 요시하루 츠카모토 作

담론을 촉발 시키는 무대

광주폴리II

1980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 이후 광주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끈 성지이자 폴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이 되었다. 이후 광주 곳곳에 역사적 장소를 기념하는 안내문과 기념비가 들어섰고, 2011년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의 일상에서 당시의 오월과 그 정신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폴리 2차 프로젝트는 ‘인권’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키워드와 함께 우리 도시, 광주의 시간과 공간에서 담론을 촉발시키는 매개자로 등장했다.

광주폴리 1차 프로젝트가 광주 읍성의 기록을 중심으로 장소를 선정했다면, 2차 프로젝트는 광주의 공간과 정치적 질서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공간 계획에 나섰다.



이동식 포장마차II / 아이 웨이웨이 작



혁명의 교차로 / 예알 와이즈만 작

광주비엔날레재단은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주의 정치적 힘이 형성되고 나타나는 장소’를 조사해 광주폴리의 위치를 선정했다. 이를 토대로 참여 작가들이 인권도시 광주의 장소성을 담은 독창적인 조형물들을 내놓으면서, 8개의 광주폴리가 도심 곳곳에 들어섰다.

광주폴리 2차 프로젝트에서 문화관광탐험대가 주목한 것은 새롭게 시도된 이동식 폴리 ‘포장마차’와 ‘틈새호텔’. 이동식이라 광주 도심 어딘가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두 개의 폴리를 만난 곳은 비엔날레 전시장이었다. 행사시에 투숙객을 받는다는 ‘틈새호텔’은 문까지 잠겨있어 제대로 감상하기 어려웠다. 작품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문을 잠근 것이겠지만, 이동식 폴리를 제대로 감상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

다음 코스는 ‘광주천 독서실’. 건축가 데이비드 아자예와 소설가 타이에 셀라시가 공동으로 참여해 인권도서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시민들의 자유로운 독서를 위해 비치된 인권도서들이 잇따라 분실되어 현재는 모형 책들이 서가를 채우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먼 광주의 시민의식을 엿본 듯 해 씁쓸했다.



탐구자의 전철 / 락스 미디어 콜렉티브 作

문화관광탐험대가 선택한 세번째 코스는 탐구자의 전철이다. 탐구자의 전철은 특정시간에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승차를 원한다면 미리 운행시간을 확인해야한다. 전철에 올라타니 수 갈래로 흩어진 검은 선들이 서로 만나고 흩어지며 묘한 시각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의자에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정치운동가, 신, 예언자 등의 이름이 부착되어 있다. 일상의 풍경 처럼 전철에 몸을 실은 시민들을 지나 전철 앞쪽으로 향하니 이용승객을 위한 안내문이 눈에 들어온다. 광주폴리 작품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분은 옆 차량을 이용해달라는 권유인데, 사람마다 예술적 취향이나 문화적 가치인식은 다를 수 있고, 그러기에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음을 인정하는 문구가 마음에 와 닿는다. 문화란 맛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살아있어야 민주도시이고, 인권도시 아닐까? 문득 광주폴리 홈페이지에서 읽었던 글이 떠오른다.

‘일상과 유토피아를 연결하는 공간을 활성화하는 것과 실제적인 필요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담론을 활성화시키고 촉발시키는 무대가 되는 것이 광주폴리Ⅱ의 특별한 임무이다.’



광주천 독서실 / 데이비드 아자예 & 타이에 셀라시 作

문화가 일상이 되는 곳

동명동

광주의 핫 플레이스를 고른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동명동이다. 눈길을 사로잡으며 발길을 돌리게 하는 다양한 카페들이 줄 지어 들어서고, 이색 체험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들이 그 틈을 파고들며 그야말로 문화가 일상이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동명동은 한때 광주에서 잘나가는 동네였고, 잘사는 동네였다. 옛 광주읍성에 있던 서원문의 동문 밖이라 해서 ‘동밖에’ 또는 ‘동계’로 불리다가 1946년 동명동이 되었는데, 일제강점기 일본인 농장주와 관리자, 일본 상인들이 조선인을 상대로 장사와 고리대업을 하며 많은 부를 축적하고, 농장 아래 고급주택을 짓고 살면서 형성된 마을이 동명동이었다.



감정소통홀 '천청자리'에서의 북 콘서트

1990년대까지도 잘나가던 동명동은 신도심 개발과 공공기관의 이전 등으로 도심공동화가 심화되며 활기를 잃어갔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서였다.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공간이 들어선다고 하니 동명동에 작업실을 여는 예술인들이 늘어났고, 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이색문화를 즐길 수 있는 카페와 문화공간이 속속 들어섰다. 동네 주민들도 텃밭과 꽃밭을 가꾸며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동명동의 변화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일상을 찾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고, 문화를 즐기려면 동명동으로 가라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동명동이 잘나가는 동네로 거듭난 것이다.



눈에 띄는 문화공간을 살펴보자. 백양사 포교국장을 지낸 수안스님의 감성소통홀 ‘천청자리’는 50평 남짓한 공간에 70석 규모의 객석을 갖춘 공연장으로 노래하는 수행자인 수안스님의 정기 공연과 광주 지역 음악인의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복덕방 ‘탱글’은 첼로와 플루트를 전공한 음악인들이 운영하는 공간으로 복덕방 레슨을 통해 주민과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악기 연주법을 전하고 있다. 인문학 살롱 ‘사름’에서는 다양한 시민을 위한 인문학 강의와 문화 파티를 마련하고 있다. 서석초등학교 앞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플리마켓 협동조합의 ‘동그랑마켓’이 열려 청년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수공예 소품들을 합리적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동명동의 속살을 보고 싶다면, 동명동 주민센터에 들러 동명동 골목길투어 가이드맵 ‘동밖에 마실길’을 하나 챙겨 골목길을 걸어보길 권한다.

앞으로도 동명동에 공간을 마련해 새로운 문화공간을 꾸며보려는 젊은 예술가들과 문화기획자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몇 년 후면 동명동이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사뭇 기대가 된다.



영혼으로 노래한 비가(悲歌)의 왕자

김정호

독백하듯 사랑의 언어를 읊조리는 그의 모습에서
 음악팬들은 모처럼 순수와 진실의 결정을 목격했다.
 트로트에 젖어 끓은 포크음악에
 정을 붙이는데 시간이 걸렸던 기성세대들도
 김정호의 노래만은 빠르게 받아들였다.
 그의 목을 통하기만 하면
 무조건 슬프고 처절한,
 때로는 염세적 분위기로 표현되어
 감읍하는 노래로 변하고 했다.
 그는 가요계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찾기 어려운
 비애의 왕자였다.

임진모 가수를 말하다 : 영혼으로 노래하는 우리 시대 최고의 가수 41 중에서



故 김정호

자신의 삶을 불사르듯 치열하게 음악에 매달리다 불멸의 음악을 남기고 떠난 이들이 있다. 너무도 짧은 시간에 놀라운 명곡을 내놓았기에 우리는 그들을 천재 요절 가수라 부른다. 1970년대 우리의 심금을 미묘하게 흔들었던 천재 가수, 김정호도 3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광주에서 생활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광주시와 대한가수협회 광주지회는 김정호의 생가 터에서 수창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길을 ‘하얀 나비의 가수 김정호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비가의 왕자로 불리는 김정호는 1970년 당시 음악계에서 ‘한국의 모차르트’라는 찬사를 받은 싱어 송 라이터로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처연한 선율에 유려한 코드 진행을 보여줬다. 김정호와 젊은 날을 함께 했던 동료 가수들은 달동네에서 배고픔과 싸워가며 음악 활동을 했던 그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얘기했다.

김정호가 음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당시 음악적 동반자였던 임창제가 어니언스로 인기를 얻고, 자신의 앨범에 실린 곡들이 김정호가 작곡한 것이라 공개한 덕분이었다. 이후 임창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솔로가수로 데뷔한 김정호는 ‘이름 모를 소녀를 통해 인기 가수가 되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975년 대마초 파동에 연루되며 김정호는 어떤 무대에도 설 수 없는 가수가 된 것이다. 2년 후, 김정호는 자신의 히트곡인 이름 모를 소녀의 주인공 이영희씨와 결혼했으나 수없이 이사를 다녀야했을 만큼 생활이 어려웠다. 지인들이 그에게 맡긴 생음악 레스토랑 ‘꽃잎’이 당시 김정호가 유일하게 노래할 수 있는 무대였다.

1980년 가수 활동 금지에서 풀려난 김정호는 재기를 꿈꾸며 앨범 ‘인생’을 내놓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얹친 데 덮친 격으로 폐결핵이 그를 괴롭혔고, 담당의사는 노래를 계속 하면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노래를 포기할 수 없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진 곡을 노래하고 녹음하느라 무려 5개월이 걸렸음에도 그는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다.

당시 김정호는 어디를 가든 팽과리를 들고 다닐 정도로 국악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명창 박동실을 외조부로 두었으나 모친의 극심한 반대로 국악을 배우지 못했던 김정호였기에 더욱 강한 끌림이 있었을 것이다. 숙명처럼 국악의 매력에 빠져든 김정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듯 마지막 앨범 ‘남’에 상여소리 같은 가락을 담아냈다. 그리고 1985년 11월 29일 서울대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김정호가 세상을 뜬 지 30년만인 2015년 10월 10일, 김정호의 모교였던 광주수창초등학교에서 ‘제1회 김정호 추모 음악회’가 열렸다. 1부에서는 김정호의 삶과 음악 세계를 담은 추모 영상 상영과 지역 가수들의 김정호 따라 부르기가 마련됐고, 2부에서는 김정호와 오랜 인연을 나눴던 하남석, 임창제, 신계행, 유심초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와 함께 김정호 추모 음악회는 잠시 대중의 기억 속에 사라졌던 가수 김정호를 되살리는 첫걸음이 되었다.



제1회 김정호 추모음악회에서 공연하는 어니언스의 임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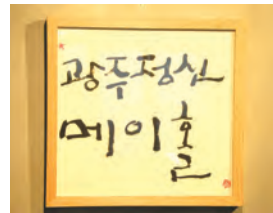
광주정신으로 빛은 예술공간

메이홀 & 이매진

메이홀

이름 그대로 5월을 담은 메이홀. 이곳에는 만물이 생동하는 5월이 아닌 1980년 붉은 꽃잎이 금남로에 떨어지던 5월이 있다. 메이홀은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의 희생을 머금어 꽃을 피우는 공간을 지향한다.

2012년 메이홀이 광주시민의 자생적인 문화공간을 목표로 동구 인쇄골목 초입에 들어섰다. 문화로 먹고 살기 힘든 지역에서 관에 의지하지 않고 광주 시민의 힘으로 문화공간을 운영하겠다는 목표는 무리인 듯 했는데, 지역예술가, 사업가, 의료인, 공직자, 종교인 등이 후원회원으로 나서서 운영비를 마련한 덕분에 광주 최초의 자생적 문화예술공간으로 당당히 설 수 있었다. 메이홀 후원회원들은 '물거름햇살지기'라 불린다.



하나의 공간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살을 주어 지역문화예술을 꽃 피워보자는 뜻이 담긴 것인데, 물 회원은 매달 1만원, 거름 회원은 매달 5만원, 햇살 회원은 매달 10만원을 후원하고, 메이홀이 기획한 전시, 공연, 파티 등에 초대된다.

‘광주정신으로 빛은 최초 시민 자생 예술공간’을 지향하는 메이홀의 내부는 옛 전남도청에서 가져온 벽돌들, 아일랜드에서 건너왔다는 창문, 광주정신 메이홀이라 적힌 액자 등이 묘한 어울림을 이룬다. 메이홀에는 전문작가의 큐레이팅으로 수준 높은 전시작품이 펼쳐지기도 하고, 음악공연이 펼쳐져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하기도 한다.

개관 이후 3년, 메이홀은 여전히 후원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관의 지원을 받는 예술보다야 가난하지만 자존감 있는 예술정신으로 자유로운 예술혼을 펼치고 있다. 메이홀은 해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를 선정해 5.18을 재해석하는 전시를 열고 있고, 6월이면 광주 극장과 함께 쿠바, 남미, 인도, 러시아 등 세계로 떠나는 영화여행에 나선다. 이외에 나희덕 시인과의 시 공부 모임, 한희원 작가의 예술사 강의, 임의진 관장의 음악여행 이야기 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 상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육 신청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 되니 참여를 원한다면 메이홀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한다.



옛 전남도청에서 가져왔다는 벽돌



이매진 공간 표어가 걸린 주방

메이홀과 같은 시민자생적 예술공간들이 다양한 공공 예술프로젝트와 씨줄 날줄로 엮이며 다양한 문화예술로 승화될 때 우리 광주는 문화수도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매진

2015년 7월 메이홀 2관인 이매진이 문을 열었다. 메이홀에서 만남을 이어오던 20~30대 청년 20여명이 주축이 되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앞에 이매진을 연 것인데,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를 공간 표어를 내건 이매진은 요가와 요리,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이매진 내부는 40여평 규모의 공간에 기다란 탁자가 놓인 주방이 있고, 그 옆으로 난 작은 문을 지나면 넓은 나무마루공간이 펼쳐져 있다.

이매진에서는 공간 표어인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정기적인 요리반인 ‘먹고’는 조선대 와인강사 김보라씨가 와인 강좌를, 요리사인 조경현씨가 요리를, 동티모르 피스 커피를 개척한 양동화씨가 커피 강좌를 운영한다. 요가반 ‘기도하고’는 원광대 강사 바수무쿨씨와 요가강사 박은순씨가 진행한다. 그리고 시네마 월드뮤직 스쿨인 ‘사랑하라’는 월드뮤직 전문가인 임의진 목사와 광주극장 김형수 이사, 음향전문가 박건구씨가 함께 한다.

3포 세대, 5포 세대하며 직장도 결혼도 꿈도 사랑도 포기한다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곳, 이매진에서는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 맘껏 꿈꾸고 맘껏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광주의 젊은이들이여 imagine~

Imagine there's no heaven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It's easy if you try

그건 쉬워요

No hell below us

우리 발밑에 지옥이란 건 없고

Above us only sky

오직 하늘만이 우리 위에 존재할 뿐이죠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 사는 걸 상상해보세요

Imagine there's no countries

나라들이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It isn't hard to do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Nothing to kill or die for No religion too

종교란 명목으로 죽이지도 죽지도 않아요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걸 상상해보세요

You may say that I'm a dreamer

당신이 나를 몽상가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But I'm not the only one

그런 사람은 저만이 아니에요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언젠가는 당신도 동참하길 바라요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그럼 세계는 하나가 될 거예요

존 레논의 Imagine 중에서

여기 광주와 부산 하나요

0518

메이홀, 이매진과 비슷한 시기인 2015년 4월에 문을 연 0518은 갤러리바다. 0518이라는 이름은 5.18 민주화운동을 좀 더 짧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선택한 이름이라고 한다. 들어서서 입구에서 빨간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손님을 맞는다. 안으로 들어서니 스피커 위에 작두 타는 여자가 눈길을 끈다. 가만히 지켜보니 작두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는 모습이 흥미로운데, 이렇듯 독특한 아름다움과 재미를 선사하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이 바로 0518이다.



짙푸른 벽면과 빨간 창문이 어우러진 0518의 내부는 상당히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푸른 벽면에는 세계 각국의 풍경을 담은 사진이 펼쳐지기도 하고, 독특한 질감의 회화작품이 전시되기도 하는데, 어떤 작품이든 톡톡 튀는 매력을 발산하게 만드는 마법의 벽면이다.

갤러리가 작품을 만나는 곳이라면 갤러리바는 간단한 음료나 음식을 즐기며 작품에 대한 감상을 나누거나 구매하는 곳이다. 0518에는 전국 어디에 가도 없는 독특한 메뉴가 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주먹밥과 부산에서 직접 공수해온 어묵으로 이루어진 세트 메뉴다. 음식으로 동서화합을 이룬 0518의 세트 메뉴는 5천원이면 맛볼 수 있다. 마트에서 파는 부산 어묵을 사용하느냐고 물으니 부산에서 직접 어묵을 공수해온다고 한다. 동서화합이라는 의미를 담은 음식인 만큼 대충 준비할 수 없었다는 주인장의 답변에 저절로 엄지손가락 척~ 올라간다.

음식의 특별함은 비싼 재료와 화려한 꾸밈에 있다기보다 음식을 대하는 자세와 정성에 있음을 깨닫는다.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이들이 늘면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늘고 있다. 이젠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차를 마시거나 술과 함께 간단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도 많다. 그러나 광주와 부산이 하나 되는 동서화합까지 경험할 수 있는 곳은 0518뿐 인 듯하다.

어디서든 노래꽃 피우는 사람

가객 정용주

악보 없이 500곡, 악보가 있다면 1,000곡도 부를 수 있는 통기타 가수 정용주. 그에겐 가수라는 말보다 가객이 더 어울린다. 크고 작은 지역행사는 물론이고, 그의 노래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기타를 들고 달려 가니 그야말로 가객인 것이다.

정용주는 박문옥, 한보리, 김원중, 고(故) 범능스님과 함께 광주의 5대 포크가수로 손꼽힌다. 1970년대 청춘들이 그러했듯 기타 치며 노래하길 좋아했던 정용주는 광주MBC 라디오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에 고(故) 김형옥과 듀엣으로 출연하며 본격적인 가수 인생을 시작한다. 그리고 삼십여 년을 광주에서 기타 치며 노래하는 포크 가수로 살아왔다.



2002년에야 첫 음반 ‘좁은 길 그 위에서’를 내놓은 정용주는, 4년 후 산노래를 담은 2집 음반 ‘산·산·산’을 발표했다. 최초의 산노래 앨범을 제작한 이유를 물으니 산에서 불리는 산노래 중에 일본 군가를 개사한 노래가 많아 우리 산노래를 전파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음반을 제작했다고 한다. 이런 그의 마음이 산을 좋아하는 이들과 통했던 것일까? 산노래 ‘지리산’이 입소문을 타면서 정용주는 ‘지리산 가객 정용주’란 닉네임까지 얻었다.

2006년 가객 정용주는 ‘찾아가는 음악여행’을 시작한다. 노래하는 이들이 한 달에 한번이라도 모여 공연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자는 취지였다. ‘제1회 찾아가는 음악여행’은 해남 설아다원에서 열렸다.

도심이 아닌 자연에서의 공연은 공연자와 관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행복한 경험이었고, 이후 정용주의 찾아가는 음악여행은 관객이 몇 명되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도 진행됐다. 찾아가는 음악여행에 동참한 문화예술인들 대부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공연으로 누군가에게 행복을 선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용주의 찾아가는 음악여행에는 원칙이 하나 있다. 공연 요청이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지만, 공연 요청 없이 공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연을 이어가는 것보다 진정 음악을 나누고 싶은 이들과 함께 공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삼십여 년을 곳곳이 기타 하나 들고 음악 활동을 이어온 가객의 뜻심이다.

정용주에게 언제까지 가수 활동을 할 계획인지 물으니 노래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한다. 무대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노래꽃을 피워온 30년 내공의 가객다운 답변이다. 최근 퓨전 국악 작업에 빠져있다는 그는 우리 민족의 음악인 국악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작업해 누구나 쉽게 즐기게 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오늘도 기타 하나 둘러매고 어딘가로 나서는 가객 정용주, 그가 열정을 다해 선사하는 노래꽃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다.



다시 태어난 역사의 장소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광주 사람들이 주저 없이 벚꽃 명소로 손꼽는 곳, 바로 상록공원이다. 수백 년 된 벚꽃나무 길을 걷다가 하얀 꽃비라도 맞으면 저절로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된다. 흐드러진 벚꽃만으로 충분히 가볼 만한 상록공원에 또 하나의 볼거리가 추가됐다.

지난 2003년 옛 전남도지사 공관에서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난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이다.

1982년에 건립된 옛 전남도지사 공관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광주전남을 방문할 때 사용한 숙소로 지방청와대로 불리던 곳이다. 80년 5월의 아픔이 엄연한 광주 시민에게 한 맺힌 아픔을 쏟아내는 애증의 장소였던 옛 전남도지사 공관은 전남도청 이전으로 그 용도가 폐지되었다.



이후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며 옛 전남도지사 공관과 주변 녹지공간은 광주시민을 위한 예술공간과 근린공원으로 재탄생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의 분원인 상록전시관은 오랜 세월 철저히 출입을 통제한 덕분에 숲속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다양한 시각예술품 전시와 문화 및 교육 행사를 통해 광주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 외곽에 있는 미술관에서나 가능했을 휴식을 도심 한복판에서 즐길 수 있으니 상록전시관 방문객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다.

너른 잔디밭과 우거진 숲. 그리고 다양한 예술작품이 어우러진 상록전시관에서는 누구든 문화시민이 될 수 있다. 작품 감상의 여운을 만끽하며 분주한 도심에서 잠시 쉬어가고 싶다면, 상록전시관 바로 옆 ‘하늘정원’에 들러도 좋다.

유난히도 하늘이 파란 날,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탁 트인 창으로 하늘을 바라보노라면 나도 모르게 풍덩하고 그 안으로 빠져들 것만 같다.



광주사람 모두의 평안을 비나이다

광제사

사람들 오가는 소리, 물건 값을 흥정하는 소리,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소리 등으로 시끌벅적한 양동시장
뒤편으로 조금 올라서니 조용한 절집 하나가 나타난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찰, 문화가 피어나는 사찰이라
불리는 광제사다.

올해로 창건 12년이 된 광제사, 다른 사찰에선 보지
못했던 모습이 궁금증을 자아낸다. 대부분의 사찰
에서 대웅전은 화려한 단청으로 꾸며져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광제사 대웅전은 사찰이라기보다
낡은 한옥 느낌이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광제사가
사찰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100여 년 전 지어진
한옥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란단.



한옥의 주인은 유은학원 설립자인 고 최선진 선생
으로 1960년대 금남로 확장공사가 진행되면서 7채로
구성된 한옥 중 2채를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이후
후손이 한옥을 조계종에 기부하면서 ‘광주 사람들을
모두 편안하게 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광제사가
되었다.

광제사가 꽃보다 아름다운 사찰이 된 것은 1993년에
화엄사에서 출가한 석두스님의 노력 덕분이다.

고 최선진 선생 일가와의 남다른 인연으로 광제사
창건을 추진한 석두스님은 오랜 세월 원시림처럼
방치되었던 공간에 나무와 꽃을 심었다. 그리고
철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광제사에서 2014년
부터 신자들뿐 아니라 광주시민들에게 열린 공간과
문화 나눔을 제공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행사가
사계 음악회다. 화려한 무대도, 유명한 연주자도
없는 소박한 산사음악회지만,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진 음악은 색다른 감동으로 다가온다.

광제사의 매력은 말하는 이에 따라 다양하다. 어떤
이는 광제사의 새벽이 좋다고, 어떤 이는 비오는
날의 광제사가 좋다고, 어떤 이는 단풍 필 무렵의
광제사가 좋단다.

이렇듯 다양한 표정 다양한 풍경을 품은 광제사,
언제라도 한번쯤 광제사에 올라 나만의 일경을 꼽아볼
만하다.





147만 광주시민의 꿈이 숲이 되다

광주광역시청 시민숲

올해로 지방자치 20주년,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영역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활동들과 서비스가 펼쳐졌다. 그러나 20년의 공력에도 아직은 갈 길이 먼 우리의 지방자치에 작은 디딤돌 하나가 등장했다. 2015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청사에 시민을 위한 공간, 시민숲이 들어선 것이다.

광주광역시청 1층 로비 공간을 활용한 시민숲은 시민숲 도서관, 시민숲 등지, 안전체험관, 로컬푸드 직매장, 장애인생산물 전시관, 영상관, 발언숲 등으로 꾸며졌다.



2014년 시민공감형 시청사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 구축에 나선 광주광역시에서는 다양한 시민의 제안을 받고, 토론하고, 전문가들과의 릴레이 워크숍을 진행했다. 그 결과 1,192건의 시청사 리노베이션 제안이 접수되었고, 이를 토대로 광주시민을 위한 공간, 시민숲을 구축했다.

시청사 1층의 대형 기둥을 활용한 시민숲 도서관에서는 누구든 맘에 드는 책을 골라 독서를 즐길 수 있고, 시민숲 등지에서는 전시나 세미나 등 소모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연회비 3만원이면 2주일간 장난감 무료 대여가 가능한 희망장난감도서관을 추천한다. 7세 이하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부모도 아이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희망장난감도서관 바로 옆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믿을 수 있는 지역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도
좋고, 영상관인 무등홀에 들러 영화 한 편을 감상하는
것도 좋다. 공사 중인 안전체험관이 완성된다면,
지진체험 등 안전체험이나 교육도 가능할 것이다.

하나의 장소가 탄생하면, 그 장소를 이용하려는 사람
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그곳만의 문화와 장소성이
생겨난다.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원래부터 있었던
길이 아니듯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할 때마다
시민숲의 문화도 장소성도 변화할 것이다. 2015년
첫 걸음을 내딛은 시민숲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지 궁금하다.





광주광역시청 18층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가지 풍경

여기가 바로 지구촌

광주국제교류센터

세계는 하나, 지구촌 시대를 실감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광주시 동구 중앙로 196번 길에 있는 광주국제교류센터다. 아프리카에 온 유학생, 캐나다에서 온 외국인 강사, 네팔에서 온 산업연수생 등 세계 각 국에서 광주로 온 외국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민간 교류 활성화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광주국제교류센터가 문을 연 것은 1999년, 광주시가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켜보겠다는 취지에서 설립했고, 광주시민연대가 운영을 맡았다. 초기에는 공간마련이 쉽지 않아 광주시민연대 사무실에서 한국어교실과 GIC 토크 등 필수 프로그램만을 운영했다. 2002년 적극적인 회원모집에 집중한 덕분에 150명 회원의 후원으로 금남로 전일빌딩에 독립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센터 운영을 위한 후원금은 여전히 부족했으나



소수의 전임 간사와 자원봉사 간사가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 덕분에 광주국제교류센터는 왕성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광주국제교류센터 설립 13주년을 맞은 2011년에는 상임이사 직제 신설 및 사업별 팀제 도입 등 내부조직을 강화하고, 활동영역을 확대해나갔다. 그 결과, 2000년 5명으로 시작했던 GIC 토크는 50여명이 참여하는 영어토론 모임이 되었고, 내외국인 자원봉사자의 활동으로 센터운영도 활기를 띠고 있다.

2014년 1월, 중앙로에 있는 현재의 건물로 이전한 광주국제교류센터. 1층에는 안내창구, 글로벌 라운지, 갤러리, 강당을 운영 중이고, 2층에는 도서실, 세미나실을 운영 중이다. 갤러리, 강당, 세미나실 등 시설 이용은 유료지만, 센터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다. 광주 Free Cycle 커뮤니티를 기획한 리앤 브론조씨는 2층 도서실 공간에 중고물품을 모아두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곳에서의 정착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도 절약하자는 취지였는데, 광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외국인들의 정착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광주국제교류센터 탐험을 마치고 나서는 길, 지구촌 사람들의 합리적이면 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 덕분에 우리 광주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기막힌 광주풍경을 한눈에

사직공원전망대

파리에는 에펠탑, 서울에는 남산타워, 광주에는 사직공원전망대가 있다. 광주의 대표적 도심공원이자 전망공간이었던 사직공원전망대에 서니 한눈에 들어오는 광주가 그야말로 감동이다. 그래 전망대는 이 맛이다!

광주 도심 전망대가 자리한 사직공원은 사직단 터라 붙여진 이름이다. 사직단은 삼국시대부터 나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던 곳이다. 사직대제는 1894년 이후 일제강점기에 완전히 철폐되었고, 1960년대 말 사직동물원이 들어서면서 사직단도 헐리게 된다. 이후 우리 역사 찾기 운동과 함께 사직단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찾자는 여론이 조성되었고, 1991년 사직동물원이 우치공원으로 이전하면서 사직단도 복원되었다.



1994년에는 100년 만에 사직제가 부활했으나 원래 사직단이 있던 자리가 지금의 전망대 자리였다고 하니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잡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의 사직공원전망대는 원래 팔각정이 있던 자리에 새로 건립한 것이다. 사직공원 팔각정은 1973년에 건립되어 광주 도심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로 자리잡아왔으나 시설 노후화와 전망 기능 상실 등을 이유로 2012년 철거되었다. 이후 2015년 3월 새로운 사직공원전망대가 들어섰다.

사직공원전망대에서 광주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싶다면 1층에서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통해 4층 옥탑 전망대로 올라야한다. 좀더 여유롭게 사직공원전망대를 즐기고 싶다면, 전망대 벽을 따라 오르는 계단에서 사직공원의 역사와 함께 해온 고목들을 만나보길 권한다. 사방이 탁 트인 옥탑 전망대는 어디에 서든 매력적인 도심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관광명소로 무등산과 어우러진 조선 대학교 일대 풍경, 근대 건축물이 자리한 양림동 풍경, 반짝이는 불빛 가득한 광주 야경 등이 매력적이다. 사직공원전망대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탁 트인 풍경을 즐기고 싶다면 꼭 한번 가보시라.

02

물길 따라 광주를 걷다

광주의 지리는 삼면이 모두 산이요.
다만 북쪽만이 평탄하게 멀리 뻗어 있으며
남산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돌이 있는데,
물의 근원이 또한 멀다.
그러므로 그것이 합류하면
그 형세가 더 클 것은
가히 알 수 있는 일이다.

목은 이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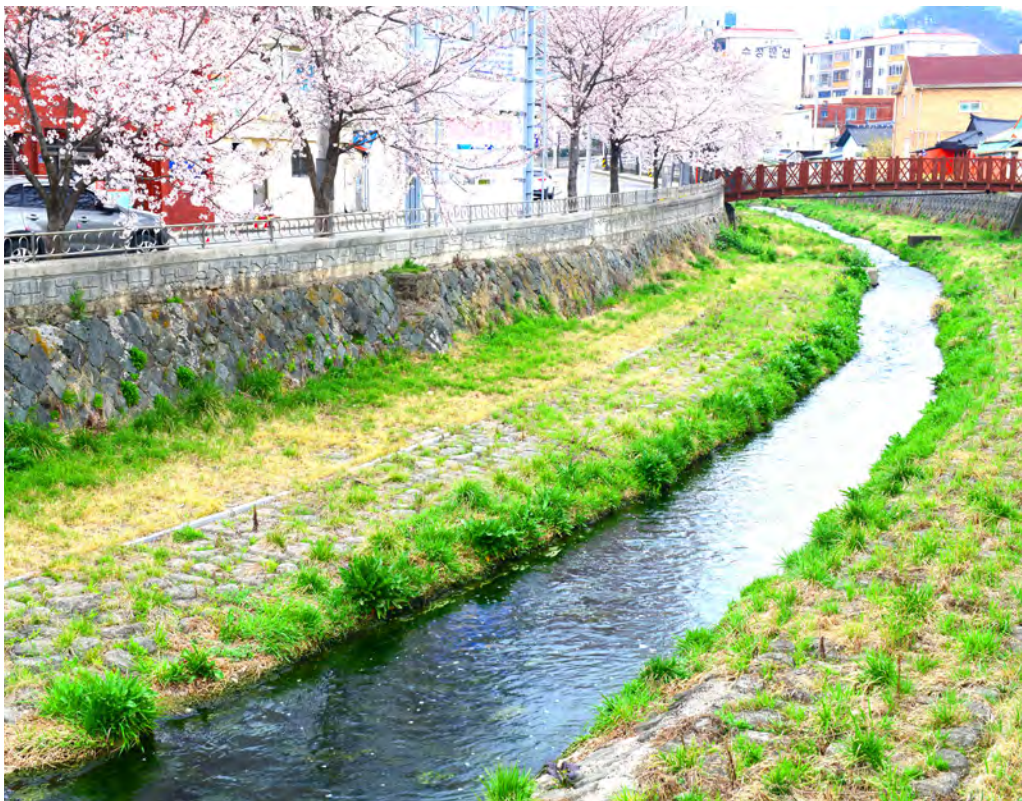
광주 시민의 삶을 따라 흐른다

광주천

인간의 역사는 하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우리들의 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도시하천은 상수도 시설이 없던 시절에는 식수이자 생활용수로 사용되었고, 상수도 시설을 갖춘 지금은 도시민의 쉼터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서울의 한강과 청계천이 그렇고, 우리의 광주천이 그렇다.

광주천은 영산강의 제2지류로 무등산 장불재 샘골에서 발원해 광주 시내의 중심부를 흐른다. 이후 누문동에서 동계천과 만나고, 광천동에서 용봉천과 유덕동에서 극락강과 합류해 영산강으로 흘러간다. 과거 꼬불꼬불 굽이진 99곡을 이뤘던 광주천은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 금계, 조탄, 서천, 한강 등으로 불렸다. 당시 광주사람들에게 광주천은 생활 문화의 중심이었다.





명절이면 광주천변 백사장에서 줄다리기와 농악놀이가 펼쳐졌고, 보가 들어선 뒤에는 수상누각을 지어 뱃놀이도 즐겼다. 자연스레 광주천 주변에 장이 형성됐고, 옛 현대극장 앞 큰 장과 부동교 인근 작은 장이 유명했다.

광주천이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27년 하천정비사업으로 인공제방축조, 곡류하도 직선화 공사를 추진하면서였다. 1970년대에는 양동 부근 광주천 부분복개를 시작으로 광주천 주요지류인 경양지천, 동계천, 서방천, 극락천, 용봉천 복개공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광주천의 주요 지류들은 하수구로 전락했고, 광주천도 건천화가 심화되며 광주 시민의 생활문화에서 멀어졌다.

1990년대 말,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도시하천인 광주천을 되살리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광주시는 2004년 ‘광주천 정비 종합기본계획’을 내놓으며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나섰다. 1급수인 주암호 원수를 공급해 광주천의 건천화를 해결했으며 수생식물 식재, 낙차보 개량 및 어도설치, 주차장 철거 등을 추진했다. 이후 광주천의 풍경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광주천으로 서서히 변해갔다. 악취가 풍기던 광주천에는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버드나무와 수생 식물들이 푸르름 가득한 수변공간을 장식했다. 광주천이 살아나니 광주 시민들이 광주천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생태환경탐사를 위해 광주천을 찾았다. 광주천이 다시 광주 시민 생활문화의 중심으로 돌아온 것이다.

광주천 다리, 부동교

1933년이 지어져 일본인들이 신관을 불러 개통의식까지 치렀다는 부동교. 조광철(광주시립민속 박물관 학예연구사)에 따르면, 부동교의 등장배경에는 당시 광주사람들의 통행관념이 있었다. 당시 광주 사람들은 사동을 거쳐 광주천을 건너야 옛 서문과 맞닿는다 생각했다. 일본인들이 광주공원 옆으로 신작로를 내고 그 길을 따라 공원다리를 짓고 광주천 물줄기를 불로동쪽으로 끌어왔음에도 오래된 통행습관은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광주 사람들에게는 다른 다리가 아닌 부동교를 건너야 광주시내였던 것이다.

학동 배고픈 다리

학동 삼거리에서 중심사로 올라가는 길에서 만나는 홍림교. 광주 사람들에게는 배고픈 다리로 더 알려진 곳이다. ‘배고픈 다리’란 이름의 유래를 알아보니 공사비가 105푼이 들어서 ‘백오푼’하다가 ‘배고픈’이 되었다는 설이 있고, 다리가 오목하게 꺼진 모습에서 고픈 배를 연상했다는 설도 있다. 이 일대는 1980년 5월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군이 시내 중심가에서 계엄군을 물리친 뒤 지역방위대를 결성해 모범적으로 지역방위에 나섰던 곳으로 현재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13호다.

물 귀한 광주의 보물

수원지

2015년 가을 가뭄이 생각보다 심각해지며 충남지역에서는 특별재난지역지정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다행히 단비가 내려 어느 정도 가뭄이 해갈되었으나 물 걱정은 떨쳐버릴 수 없는데, 1920년대의 광주도 물 부족이 심각했다.

1913년 광주군청에서 펴낸 「광주군세개지(光州郡勢概誌)」를 보면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광주읍성 우물물이 모두 불량해 식수로는 거의 적합하지 않고 샘에서 나온 물을 한 지게에 5전씩 공급하고 있어 일본인들이 초조하게 여기고 있는데, 상수도 포설 계획 및 설계가 진행 중이어서 얼마 후면 식수 걱정을 덜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로부터 4년 후 증심사 계곡 입구에 제1수원지가 건설됐고, 1920년 6월 물을 처음 내려보내는 통수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이를 보기위해 시장이나 상가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씨름대회와 마라톤대회도 열릴 정도로 광주는 잔치 분위기였다.

수원지 조성 초기에는 시내 중심부의 공공시설, 일본인 가구와 몇몇 조선인 가구가 이용했는데, 인구 증가와 함께 상수도 이용자가 늘어나자 그 당시에도 가뭄 때마다 시간제 급수를 시행했다.





제4수원지

제2수원지가 건설된 것은 1939년, 대상지는 광주천의 발원지이자 조선시대부터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던 용연이었다. 흙으로 독을 쌓았던 제1수원지와 달리 제2수원지는 석축으로 독을 쌓았다. 제3수원지는 극락강 물을 끌어다 사용하기 위해 산동교 아래 극락강변에 건설됐고, 인근 지역인 동림동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했다. 이후 제4수원지인 석곡저수지는 1967년에, 제5수원지인 동북댐은 1970년대 건설됐다.

계속된 수원지 개발로 쓸모가 적어진 제1, 제2수원지는 공업용수원으로 팔렸고, 제4수원지인 석곡저수지는 동북댐의 보조 수원지로 이용되고 있다. 화순군 이서면과 동북면 사이에 있는 동북댐은 주암댐이 생기기 전까지 광주의 수돗물을 책임져왔다. 현재도 광주 시민의 식수는 동북댐과 주암댐에서 90% 이상 공급되고 있다.

예로부터 물이 귀했던 광주의 수원지 개발이 모두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광주시는 제4수원지 완공을 앞두고 더 이상 광주에 물 부족은 없을 것이라며 무제한 급수를 장담했다. 그러나 그해 한반도 남부에 전대미문의 한 해가 찾아와 불과 몇 달 만에 시간제 급수를 실시해야 했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주시는 수원지 개발을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수원지 개발로 귀한 물을 얻었으나 아픔도 있었다. 수원지 개발로 무등산 명물인 용추폭포가 파괴되었고, 댐 건설로 생활터전이 물에 잠겨 정든 터전을 떠나야하는 이들도 있었다.

광주가 품은 영산강

극락강

전라도의 젓줄이라 불리며 남도 땅을 굽이져 흐르는 영산강. 그 물길은 지역마다 북천, 죽록천, 칠천, 금강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광주 사람들은 담양에서 흘러온 영산강이 광주 서편으로 흐르다 광주천과 합류하는 지점까지의 구간을 ‘극락강’이라 불렀으나 법정하천명이 아닌 탓에 극락강은 서서히 잊혀 졌고 극락교, 극락강역 등의 지명으로 남았다.

극락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이곳에 있었던 여관 극락원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여관 이름에 불교용어가 종종 사용되었다. 나주에 속하다가 광주 광산에 편입된 극락강은 지금은 광주 서구와 광산구의 경계를 이룬다.

극락강에는 ‘장암교’ 또는 ‘장애비다리’라고 불리는 다리가 있었고 인근에 있는 장암마을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고 한다. 장암교가 어디에 위치했었는지 어떻게 사라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극락교가 지금과 같은 철근 콘크리트 다리로 들어선 것은 1970년대 말이었다.

극락강 철교

극락강 철뚝다리라 불리던 ‘극락강 철교’는 극락강역과 광주역을 연결하는 교량이다. 산동교가 멀어 강을 건너기 불편했던 극락강 인근 주민들은 극락강 철교를 자주 이용했고, 다리 중간에 있는 대피난간에서 갑자기 나타난 기차를 피했다고 한다.

서창교

원래 흙다리였던 서창교는 1950년대 콘크리트 다리로 교체되었고, 이후 영산강개발사업이 추진되며 지금의 신서창교가 들어섰다. 서창교 아래에는 시민들을 위한 쉼터가 조성되어 지역 사랑방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상 온갖 것들이 드나들던 역사의 현장

나루

인류의 역사에 있어 강은 매우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다. 정착농업을 기반으로 고대국가가 생겨났고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적 지배구조가 형성되면서 지방 세력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곡은 치세를 이어가기 위한 근본이었다.

수도에서 먼 지역은 육상보다 해상 운송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그 토대가 된 시설이 바로 나루와 창고였다. 나루는 배를 타고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고, 창고는 각 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거둬들인 곡식이나 현물을 저장하던 창고다.

1896년 전국 13도제 실시 전까지 전라남도의 행정 중심지는 나주였고, 영산강 물길 따라 세곡을 나르는 나루와 창고가 들어섰다. 광주에는 동창, 서창, 북창이 있었다.



서창나루

첨단 월계동에 있었던 동창은 그 터가 명당으로 알려져 탐진 최씨 집안에서 그 터를 인수해 무양서원을 세웠다. 북창은 광산구 산수동 443-3번지로 추정되는데, 탐험대가 마을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찾아낸 북창터는 지금도 창고부지로 활용되고 있었다.

서창은 극락강변 서창마을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서창마을은 극락창 또는 서창으로 불리던 창고가 있던 동네다. 마을 주민에 따르면 일제도 서창을 미곡 착취에 활용했고, 지금의 마을회관에 지역민들로부터 착취한 양곡을 쌓아두었다고 한다.



서창나루 농선비(農船碑), 계류석



동창 인근 무양서원



북창터로 추정되는 산수동 북창마을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광주의 주요 나루터로 북구 용두동의 거진과 극락교 인근의 벽진이 있었다. 이외에 선암진, 공량진, 선창진, 생암진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나루가 생겨났으나 민간에서 운영한다는 이유로 역사기록에서 제외된 것들이 많았다. 조선시대 나루에는 관아에서 운영하는 나룻배가 1척 배치됐고, 건조한 지 10년이 지나면 교체하도록 했다.

서창치안센터 맞은편에는 1750년대에 세워진 농선비(農船碑)가 있는데, 농사를 위해 강을 건너야 하는 이들을 위해 나룻배를 기부한 박호련의 공적을 기리고 있다. 당시 사람들은 마을에서 흙다리를 놓아 강을 건너기도 했는데, 강 수위가 낮아지는 추석 무렵에 다리를 놓아 이듬해 봄철까지 사용하고, 강물이 불어나는 시기가 되기 전에 철거해 두었다가 다시 놓았다고 한다. 선조들은 다리가 없는 곳에 다리를 놓아주는 덕을 베풀어 나쁜 액운을 막는다하여 이를 월천공덕(越川供德)이라 했다.

20세기 초까지도 나룻배는 활발히 운영되었는데, 하천 범람으로 다리가 유실되는 일이 잦아 임시방편으로 나룻배를 띄우는 사례가 많았다. 오가는 사람만큼 이야기도 많았던 서창 나루에는 5일과 10일에 장이 섰고, 당시 광주 사람들은 소금과 어물을 사기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물길의 끝에서 광주의 중심 찾기

광주광역시 통합기준점

드라마 모래시계의 유행과 함께 정동진이 유명해지자 정남진 장흥, 정서진 인천도 인기몰이에 나섰다. 여기서 잠깐 정동진, 정남진, 정서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일까? 바로 경복궁이 있는 광화문이다. 그 기준이 광화문이 아니라 광주라면 어떨까?

2013년 광주의 동서남북 각 끝점을 탐험한 문화관광탐험대, 2015년 광주의 중심 찾기에 나섰다.

광주의 지도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계속 변화했다. 작은 읍성이던 광주는 1935년 광주부가 되었고, 광주와 광산군이 분리되었다. 이후 1949년 광주부는 광주시로 승격되었고, 광산군의 일부 지역이 광주에 편입되었다.



1963년에는 대촌과 서창이 다시 광산군에 환원되었고 1986년에는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었다. 1988년에는 송정시와 광산군이 직할시에 편입되었고, 이후 1995년 직할시가 광역시로 변경되어 오늘의 광주광역시가 되었다. 작은 읍성이었던 광주는 행정구역 개편과 인구수 증가로 그 지리적 영역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광주의 중심도 수차례 변경되었다.

2010년 1월, 광주시는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환경공단 그린파크에 통합기준점을 설치했다. 지적도면상의 동단을 북구 충효동, 서단을 광산구 양동, 남단을 남구 구소동, 북단을 광산구 광산동으로 설정하고, 동서간과 남북간 거리를 산정하여 광주의 중심점을 결정했다. 광주의 지리적 중심이자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통합기준점은 작은 원형 조형물로 위도와 경도, 높이가 표시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에 2~3km 간격으로 통합기준점을 설치해 국가기본측량, 지적측량, 공공측량 등의 기준을 제공하고, 지각변동에 의한 국토의 위치 변화 모니터링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광주 통합기준점이 있는 그린파크는 사계절 녹지공간을 표방하는 공간으로 야생화동산, 암석원, 바람개비 동산, 포토존 등이 구성되어 있어 가족 나들이나 체험교육장으로 안성맞춤이다. 꼭 한번 광주의 중심에 서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시길.

03

오월, 그 정신으로 서다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김남주의 시 자유 중에서

그 날의 역사를 기억하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윈스턴 처칠의 말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요즘이다. 엄연한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자행되며 진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로 바꿔버릴 수 있기에 올바른 역사를 기억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2015년 5월,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의 개관이 반가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학생들이 시민들과 함께 최초로 시위를 벌였던 가톨릭센터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2011년 5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자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발굴·수집하고, 안전하게 보전해 역사의 자산으로 관리·활용 해나가고자 기록관을 설립한 것이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는 ‘5월의 기록’, ‘인류의 유산’이라는 주제로 1층에서 3층에 마련된 3개의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1층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2층에는 기록물과 유품이, 3층에는 세계기록유산과 3D영상실 등이 전시되고 있다. 4층 열람실에서는 음성 및 영상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한 자리에서 관람하며 역사를 통해 배우고, 역사의 교훈을 통해 나아가자는 광주 시민의 의지를 담은 공간인 것이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핵심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인권기록유산-1980년 5월 18일 군사정권에 대항해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항쟁 관련 기록물’이다. 고문서가 아닌 현대사 자료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구의 주도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광주만이 아닌 세계가 함께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월지기의 안내와 함께 만나는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은 살아 있는 역사 교육장이다.

발길이 멈추는 곳마다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묻고 또 묻는다.

그 답을 찾아 인권도시와 민주도시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산 자인 우리의 몫이다.

30년 만에 돌아온 5.18의 상징

5.18 시계탑

금남로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향하는 길.
그 끝에서 시계탑 하나를 만난다. 장소와는 웬지
어울리지 않는 배치와 외형에 궁금증을 생긴다.
넌 어디에서 왔니?

2015년 1월 27일, 5.18 시계탑이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으로 돌아왔다. 매일 오후 5시 18분이면
시계탑에서는님을 위한 행진곡이 다양한 벨소리로
울려 퍼진다. 5.18 시계탑은 원래 1971년 광주청년
회의소와 자매결연한 일본청년회의소가 청년회의소
전국회원대회 광주 개최를 기념하는 선물로 제작한
것이다. 1980년 5월 당시 전남도청 광장에 서있던
시계탑은 잔인한 국가폭력과 안타까운 광주시민의
희생과 슬픔을 목격했다.

이후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린 독일 기자의 기사 ‘시계탑은 알고 있다’에 등장하며 시계탑은 1980년 5월을 상징하는 5.18 시계탑이 되었다.

1980년대 중반 군부는 시계탑을 농성광장으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이전 과정에서 시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광고판이 설치됐다.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물이 한낱 광고탑으로 전락한 것이다.

1980년 5월을 기억하는 광주 시민들에게 5.18 시계탑은 묵과할 수 없는 해결과제였고, 2014년 12월 광주시는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과 5.18 기념사업위원회 자문, 문화재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2015년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군부에 의해 쫓겨난 지 30년 만에 5.18 시계탑은 제자리로 돌아왔다. 5.18 시계탑의 수난사를 전하는 네 장의 사진은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하고, 안타깝게 희생된 이들을 위해 산 자인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임을 깨닫게 한다.

5.18 시계탑의 복원과정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역사다. 1980년 당시 시계탑은 원래 대리석 구조물이었으나 군부가 농성광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대리석은 사라지고 시멘트 구조물만 남았다고 한다. 5.18 시계탑 복원사업을 추진한 광주시 관계자는 1980년 당시 원형 그대로 시계탑을 복원하기 위해 원형 시계탑의 몸체였던 국산 대리석을 찾아 나섰고, 경기도 석재가공 공장에서 적합한 돌을 발견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대리석이 절단될 순간에 공장에 도착한 광주시 관계자는 돌도 다 주인이 있구나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된다. 공장장이 1980년 당시 전남도청 광장에 세워졌던 시계탑 사진을 보더니 자신의 돌이라며 남다른 감회를 털어 놓은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에게 5.18 시계탑을 복원한다는 소식을 들은 공장장은 그렇게 귀한 탑을 만드는 거라면 더 좋은 대리석을 줄 테니 강원도 정선으로 오라고 했고, 당시 상황이 파손위험 등으로 석재가공 작업을 하지 않는 겨울이었음에도 5.18 시계탑의 원형 복원을 위해 대리석 가공을 해주었다고 한다. 운명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소중한 만남 덕분에 5.18 시계탑은 세월을 거슬러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역사를 기록하고, 그 역사를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일화다. 오후 5시 18분,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5.18 시계탑을 보며 기록한다.

‘2015년 1월 27일, 광주 시민의 힘으로 1980년 5월의 역사를 바로 세우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찾아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노래이자 1987년 6월 항쟁의 중심이 되었던 노래가 있다. 민주열사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노래,님을 위한 행진곡이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1997년 정부가 5월 18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정하고, 5.18 기념식 본 행사에서 제창해온 노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식전행사에서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로 급이 낮춰져 본 행사에서 제창이 아닌 합창으로 불리면서 5.18 유가족 및 시민단체가 행사 진행방식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 주도 기념식과 별도의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에도님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제창이나 합창이나 논란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님을 위한 행진곡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노래이기에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일까? 시간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님을 위한 행진곡 원본 악보와 녹음 테이프

님을 위한 행진곡은 황석영씨가 지역문화패 15명과 함께 만든 노래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인 윤상원과 들불야학의 노동운동가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을 위한 곡이었다. 시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살벌했던 1981년이었기에 정보가 새어나가기 전에 대본, 노래, 녹음 등 모든 제작과정을 마무리해야했고, 하루를 꼬박 공들인 끝에 35분짜리 노래극 ‘광주에 살던 어느 두 젊은 녀의 죽음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 테이프가 완성되었다. 구성은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폭풍우로 시작해 도청이 함락되는 아침, 주인공들의 녀를 기리는 무등산 자장가 등이 이어지고, 마지막 주제곡으로님을 위한 행진곡이 나온다.

님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 김종률

5.18 민주화운동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음악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김종률 사무처장.

마치 자신을 증명하듯님을 위한 행진곡의 원복 악보와 녹음테이프를 내놓은 그가 바로님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다. 1979년 제3회 MBC대학가요제에서 ‘영랑과 강진’이라는 노래로 은상을 수상한 실력자였던 그는 대학교 3학년 때 5.18 민주화운동을 겪는다. 그리고 운명적으로님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다.

“저에게 무슨 재주가 있었는지, 이 곡을 4시간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어느 순간 본인이 가진 능력을 최고조로 발휘하는 때가 있는데, 저한테는님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할 당시였던 것 같아요.”

님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로 알려지자 정보부에 잡혀가 고초를 당하기도 했던 김종률 사무처장. 그가 소중히 간직해온 녹음테이프를 재생하니님을 위한 행진곡 원곡이 흘러나온다. 익숙한 멜로디에 기차 지나가는 소리, 개 짖는 소리가 뒤섞인다. 삼엄한 감시 속에 녹음을 하느라 황석영씨의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녹음했던 당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하다.

님을 위한 행진곡의 탄생지, 황석영 씨의 집터

광주문화예술회관 서문에서 중외공원 쪽으로 가는 도로변에님을 위한 행진곡 기념물이 서있다. 2013년 운암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세운 것인데, 중외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님을 위한 행진곡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좋으나 그 위치가 아쉽다.님을 위한 행진곡의 첫 녹음지인 황석영 씨의 집터가 인근에 있기 때문이다.

문화관광탐험대가 옛 주소와 인터넷에 소개된 정보,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인터뷰를 취합해보니 황석영 씨의 집터는 광주문화예술회관 안쪽 국악당과 도로를 사이에 둔 곳, 정소파 시인의 설매사 시비 주변이었다.

문화관광탐험대가 확정한 자리에 마음으로나마 ‘님을 위한 행진곡 노래가 처음 녹음된 황석영 작가의 옛 집터’라는 표지석을 세워본다.



80년 5월의 천국과 지옥

옛 국군광주병원 & 505보안부대

5.18 사적지 중에 천국과 지옥을 꼽는다면?

단연코 국군병원과 505 보안부대다. 계엄군에 체포된 시민들과 학생들은 상무대에 설치되었던 계엄사령부로 끌려가 갖은 고문과 구타를 당했다. 그 과정에서 부상당한 이들이 실려 간 곳이 국군광주병원이었는데, 군부의 엄중한 감시 아래 있었으나 의료진의 보살핌과 몸 상태에 대한 거짓보고 덕분에 시민들은 뜻밖의 천국을 맛보았다.

반면에 505보안부대는 말이 필요 없는 지옥이었다. 지금도 어디선가 고통스런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며 다들 소름끼쳐할 정도로 505 보안부대는 무고한 시민들과 민주인사들을 잔인하게 고문했던 생지옥이었다. 그럼, 5.18 당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 보자.



2007년 국군병원이 함평으로 옮겨가면서 방치되고 있는 국군광주병원 건물 내부로 들어서니 외래진료실, 외래접수실, 행정부서, 등록과, 병리실 등을 안내하는 꾀말이 지난 역사를 말해 준다. 1964년 건립된 국군광주병원은 5.18 당시에는 국군통합병원으로 불렸는데, 이곳에서의 진료기록은 군부가 환자들을 폭도와 불순분자로 매도하는 자료가 됐고, 1995년 ‘5.18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환자들이 5.18 피해자로 인정받는 자료가 되었다.





군정보부대인 광주기무부대가 1974년에 창설한 505보안부대는 5.18 당시 무고한 시민들을 고문하고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했던 곳이다. 광주기무부대가 31사단으로 옮겨간 후 화재에 10대들의 집단폭행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현재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옛 건물로 들어서니 불에 타버린 빨간 벽돌건물, 문자가 적힌 방, 중앙계단 끝에서 펼쳐진 지하실. 어디에서도 5.18 당시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알 수 없는 서늘함에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2015년 11월,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마스터 플랜 공청회를 개최했다. 5.18 당시 천국과 지옥이었던 국군광주병원과 505보안부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서구의 한 시의원은 노인건강타운을 건립하자는 의견을 제출했고, 옛 국군광주병원은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시설로 옛 505보안부대는 체험 및 역사교육공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수립되기까지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목표가 오월정신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나가는 일임은 잊지 말아야겠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보다

전남대 5.18 기념관

5.18 민주화운동 사적1호인 전남대정문, 이곳은 1980년 5월 18일 전남대 학생 200여 명이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에 모여 계엄군의 구타와 불법감금에 맞서 민주화투쟁을 시작한 곳이다.

역사적 현장을 뒤로 하고 학교로 들어서면 붉은 벽돌의 전남대학교 역사관을 마주하게 된다. 전남대가 개교 60주년을 맞아 대학의 랜드마크로 개관한 역사관에서 우리는 5.18 기념관을 만났다.

당연히 1980년 5월 당시의 기록으로 가득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전남대 5.18기념관은 1960년 4.19 군사혁명 당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전남대학교의 민주화 운동사를 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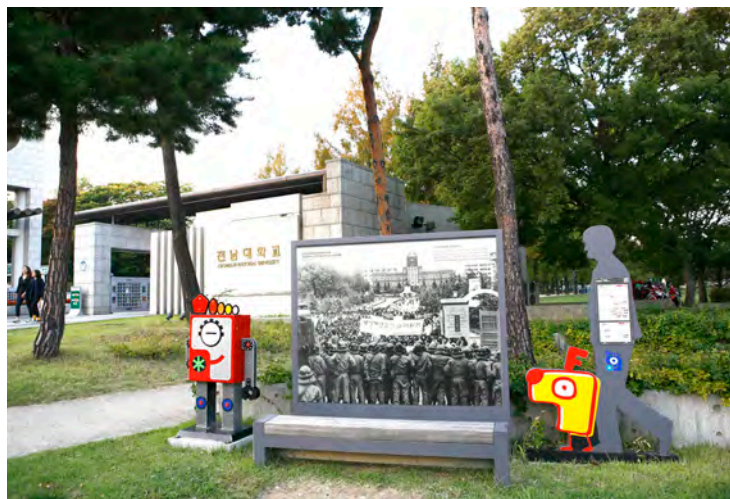
전시실은 민주역사관, 오월관, 민주열사관, 민주영상관, 민주감성관, 아카이브실로 구성되어 있다. 제1관인 민주역사관에는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전남대학교 학생과 교수가 참여한 투쟁의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다. 제2관인 오월관은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을 담은 사진 자료와 함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공간인데, 총탄 구멍이 뚜렷한 캐비닛과 피묻은 의사가운데서 당시의 긴박함과 위급함이 느껴졌다. 제3관인 민주열사관으로 들어서니 김남주, 박관현, 박승희 등 민주열사들의 삶이 펼쳐지고, 민주영상관과 민주감성관에서는 5.18을 주제로 한 영상과 예술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관을 모두 돌아보고 나니 5.18 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큰 흐름이었고, 후손들에게 계승해야 할 고귀한 정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전남대 5.18기념관은 전남대 5.18 연구소에서 전시 기획 및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1996년 12월 10일 전남대 부설 연구소로 발족한 5.18 연구소는 오월정신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그 정신과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 각종 학술대회 및 토론회, 학술지 출판, 세계석학 초청 강연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의 오월정신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전남대 역사관을 어디에나 있는 학교 역사관으로 생각하고 지나쳤다면 발길을 돌려보시라. 그곳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어제와 오늘이 있고, 함께 열어가야 할 미래가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기억해주소서

김희용 목사

올해로 광복 70주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지 70해가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해방의
기쁨을 느껴보지 못한 이들이 있다.

꽃다운 10대 시절에 일본 미쓰비시 공장에 끌려가
하루 10시간 이상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무일푼으로 고향에 돌아온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다.

억울해도 억울하다 말 못하고 부당해도 부당하다
말 못했던 그분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이가 있다.
바로 김희용 목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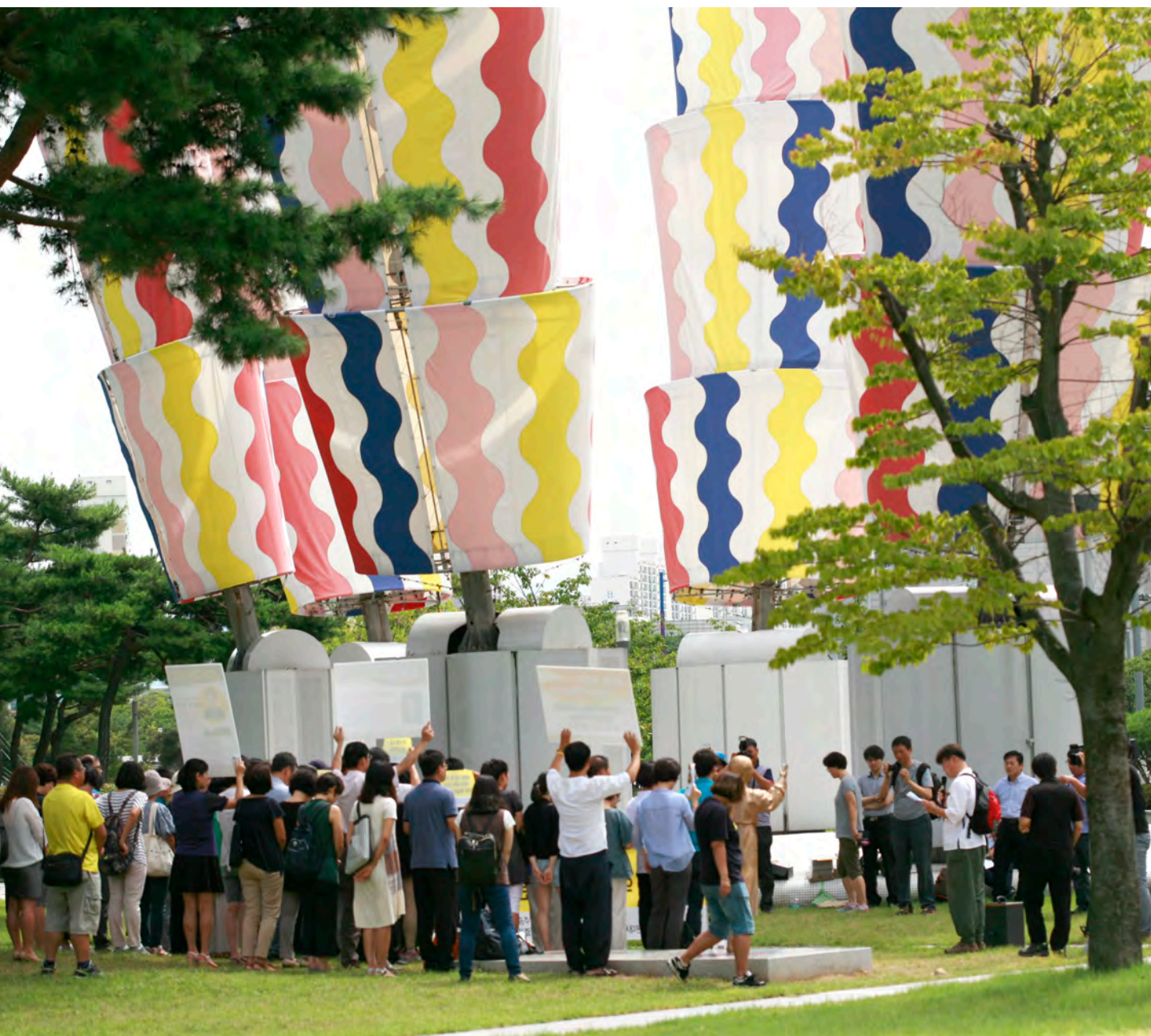
김 목사의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과 아버지에서 시작되었다. 목사였던 김 목사의 아버지는 1980년 5월 이후 ‘5.18 광주민중혁명희생자위령탑 건립 기념사업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를 꾸려 추모예배와 식발운동을 전개했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번이나 연행되는 고초를 겪었다. 그럼에도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사회운동을 멈추지 않는 아버지를 지켜보며 김희용 목사는 그 뜻을 이으리라 결심했고, 2009년부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 해오고 있다.

인연의 시작은 2008년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 회장과의 만남이었다. 처음으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피해 소식을 전해들은 김 목사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민모임을 만들어 기나긴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2008년 일본 최고 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우리나라에서 다시 제기해 2013년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에게 각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미쓰비시가 항소하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연세가 84세에서 88세이니 세월이 얼마나 판결을 기다려줄지 미지수인데,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바빠질 때면 김희용 목사는 양금덕 할머니의 이야기로 만든 노래 ‘어머니의 고무신’을 흥얼거린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기억해주소서. 일본 전범기업의 부당함에 당당히 맞서 정당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고자 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힘이 되어주소서.”



새로운 오월을 열어가는 중심

5.18기념공원

광주 서구의 대표적 공원인 5.18기념공원은 상무대 이전과 함께 정부가 광주 시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상무 신도심에 10만평을 시민공원으로 무상 양여함에 따라 조성되었다.

6만2천평 규모의 5.18기념공원에는 기념문화센터, 기념조각 및 산책로가 들어서 오월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장이자 시민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5.18기념공원의 숲속 산책로를 즐기는 것도 좋으나 가끔은 공원 곳곳에 전시된 예술작품을 하나씩 찾아가 작가들이 예술로 승화해낸 오월정신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으리라.

5.18기념문화센터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5.18기념문화관, 5.18기념공원, 5.18자유공원의 관리운영 및 5.18 관련 자료수집과 편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연장으로 민주홀, 대동홀, 리셉션홀을 운영 중이다.







생생한 역사체험의 현장

5.18자유공원

광주 서구에는 또 하나의 5.18 공원이 있다. 바로 5.18자유공원이다.

상무대 영창으로 더 알려져 있는 이곳은 김대중컨벤션 센터 인근에 자리한 공원으로 1980년 당시 계엄군의 강경 진압에 맞서 싸우던 시민들이 구금되어 군사 재판을 받던 상무대 군사법정과 영창을 옮겨와 원형으로 복원·재현한 공원이다.

5.18자유공원은 80년 5월 당시 잔인한 폭행에 피 흘리며 쓰러지던 시민군의 모습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곳으로 매년 5월이면 추모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다.



상무대 영창과 법정

5.18 자유공원 가장 안쪽, 철조망이 쳐진 곳에 6개의 영창시설이 구성되어 있다. 영창 내부 는 수감자를 한눈에 감시하기 위해 6개의 방을 부채꼴 모양으로 배치해놓았는데, 좁디 좁은 방에 갇힌 시민들은 다리도 펴지 못하다가 고문실로 끌려가야 했다.

상무대 법정은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급조된 것으로 고등군법회의를 열기위해 만들어졌다. 1980년 당시 군사재판에 회부된 616명은 제대로 된 항의와 변호도 받지 못한 채 폭도라는 이름으로 사형과 무기징역, 20년 이하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상무대 영창과 법정은 단체 방문객을 위한 체험 교육을 통해 1980년 5월 당시의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떳떳하고 자랑스럽다. 역사 앞에나 뒤에 계시는 가족들앞에서도 민주주의 만세!
자유 광주시민 만세! 대한민국 만세!”

“어린 학생과 청년들 5명이 사형선고를 7명이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어떻게해서 사형이고 무기가 되는지 법조인인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처음 재판할 때부터 이 군법재판을 인정하지 않았다.
왜? 그것은 조작극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지시를 받고 놀아난 것처럼 꾸미지 말고 차라리 무기형이라도 좋으니 수괴로 해 달라.
명색이 교수인데 수괴가 더 어울리지 않겠는가? 그래야 사람들도 믿지 않겠는가?
참 멍청한 재판부요 공소장이다.”

1980년 5월 당시 군사재판에 참여했던 이들의 진술

04

박물관은 우리의 거울이다

박물관은 단순한 ‘박물관(博物)’이 아니다.
옛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적절한 의미를 끊임없이 창조해내는 기관이다.
물론 유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지만,
의미가 부여되지 않고서는
찬란한 유물도 한낱 돌 부스러기에 불과할 뿐이다.

전진성 박물관의 탄생 중에서

자유와 주권을 외쳤던 그녀들의 역사

학생독립운동 여학도기념 역사관

“수업중이라 할지라도 민족의 자주권과 독립을 절규하면서 용감하게 전진하는 대열이 지나가면서 나오너라하면 약속이나 한 듯이 매성언니의 나가자 하는 선동에 일제히 우르르 몰려나와 대열에 참가하고 다시 일부는 붕대와 주전자를 들고 모진 왜경의 채찍에 피 흘려 쓰러진 학도들의 간호에 전력을 다하였다. 비록 연약한 여자의 몸일망정 자유와 주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민족정신의 찬연한 발로였던 것이다.”

장경례 전남여자중학교 창립30년사 옥중고난회상 중에서



3.1 운동, 6.10 만세운동과 함께 3대 항일독립운동으로 기록된 광주학생독립운동.

일제의 억압에 대한 저항과 식민지 교육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와 전 민족적 투쟁으로 확산되었던 그 현장에 광주여고보 학생들이 있었다. 자유와 주권을 외쳤던 그녀들의 역사를 학생독립운동 여학도기념 역사관에서 만났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나주에서 광주로 통학하던 일본인 학생들이 광주여고보 학생들의 땀겨리를 잡아당기며 희롱한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박기옥의 사촌동생이 일본인 학생들의 행동에 격분해 난투극을 벌이고, 여기에 일본인 순경의 편파수사와 광주일보의 편파보도가 더해지면서 한일 학생들의 충돌은 더욱 격렬해졌다. 이후 한국인 중등학교 휴교령과 함께 무차별 검거령이 내려지고 일제의 탄압이 이어졌으나 식민지 노예교육 철폐, 조선인 본위 교육제도 확립을 외치는 학생들의 투쟁의지는 꺾을 수 없었다.

광주여고보 학생들은 소녀회를 만들어 민족문제와 여성해방운동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이어나갔다. 목표는 여성을 남성의 압박에서, 무산계급을 자본가 계급의 압박에서, 조선민족을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1930년 소녀회 활동으로 피검된 광주여고보 학생들은 옥고를 치러야했다. 당시 남성 중심의 조직적 민족운동이나 사회운동에 비해 미약하긴 했으나 여성들도 역사의 주체로서 구국운동에 참여했던 것이다.

옛 광주여고보 건물을 그대로 활용한 학생독립운동 여학도기념 역사관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가 고스란히 보존된 유일한 사적지로 조선 여성교육의 변천사와 함께 항일 역사교육의 장소로 매우 소중하다.

광주여고보의 교무실로 사용하던 1층에는 추억의 교실과 학교 관련 유물들이 전시중이고, 교실로 사용되던 2층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와 전남여고 선배들의 활약상이 전시되어 있다. 전남여고 신입생들은 이곳 역사관에서 관람수업을 듣는 것이 학교의 전통이라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오감으로 즐기는 남도의 맛과 멋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남도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음식이다.
자연의 축복을 받은 남도는 드넓은 평야에 삼면에 바다를 접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다양한 음식과 화려하면서도 풍부한 맛을 자랑한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과 요리법을 보유하고 있는 남도음식을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만나보자.

지난 2007년 2월에 개관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남도의 자랑인 향토음식의 명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조성되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박물관에는 남도향토음식 전시실, 기획전시실, 뮤지엄 스튜디오, 호남문화 자료전시관, 향토음식 체험실, 어린이 체험실이 들어 서있다.



남도향토음식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2층 남도향토음식 전시실로 가보라. 우리 음식문화의 변천에서부터 남도향토음식, 남도의 민속주와 차, 남도 전통부엌, 남도의례 음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남도 한정식으로 대표되는 남도의 상차림은 가짓수가 많기로 유명하다. 예로부터 조상 잘 모시고, 손님대접 잘하는 것을 큰 덕목으로 삼았던 전통이 나눔의 공동체 문화와 훈훈한 인심으로 승화된 것이다. 대한민국 맛의 고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남도는 독특한 조리법을 계승하는 한편 끊임없는 계량화 작업을 통해 음식문화의 상업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해 향토 음식 만들기도 체험해보자. 전문 강사진이 진행하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체험 프로그램은 초보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다양하고, 교육 만족도가 높아 예약이 빨리 마감되니 서둘러야 한다. 남도음식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원한다면, 3층 호남문화자료전시관에 들러 남도음식문화를 일궈낸 문화적 토대를 만나보는 것도 좋다.

요것이 다 보물이여

평동생활역사유물전시관

2015년 6월 26일, 광주에 새로운 유물전시관이 문을 열었다. 오랫동안 방치된 평동 주민센터 창고를 리모델링한 평동생활역사유물전시관이다.

예로부터 광산구 평동은 농촌문화가 발달한 지역이었으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로 도시화가 진행되며 농촌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는 곳이다.

2014년 9월 평동주민들은 생활역사유물전시관 추진위원회(위원장 김근수)를 구성하고, 평동지역 마을을 돌며 쓸모없이 방치되고 있는 씨레, 쟁기, 벼들 등 농촌생활유물 280여점을 수집했다. 그리고 이를 깨끗이 청소하고 수선해 전시품으로 내놓았다.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생활용품들이 깨끗하게 손질되어 전시관에 진열되니 전시관을 준비하는 이나 기증한 이나 보람이 컸다.



비록 수천 년 수백 년 된 유물도 아니고, 값비싼 물건 하나 없으나 평동 사람들의 살아있는 역사이기에 더없이 소중한다.

평동생활역사유물전시관에는 280여점의 농촌생활유물과 함께 1940년대 혼례식, 1960년대 배로 황룡강을 건너는 모습 등 평동 주민들이 2013년 옛 사진 전시회를 위해 모아둔 기록 사진 55점도 함께 전시되었다. 이제는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모습들이다. 하나둘 마을 사람들이 전시장에 모이면 농기구 하나 생활소품 하나만으로도 이야기꽃이 피어난다.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유물들이니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인데, 자식 낳아 키우느라 죽을만큼 힘들었던 순간도 농사를 포기하고 싶었던 그때 그 시절도 이제는 다 추억이 되었다. 전시장에 진열된 낡고 찌그러진 농기구들을 보니 자신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성실히 일상을 꾸려온 농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평동생활역사유물전시관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길, 양심카페에 들러 차 한 잔을 나눈다. 양심 카페인 만큼 값을 치르는 것도 양심, 자리를 치우는 것도 양심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힘든 일은 서로 돕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던 푸근한 농촌의 정이 흠뻑 느껴진다. 별것이 보물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요것들 모두가 보물이다.

소박하면서도 알찬 카메라 컬렉션

세계카메라영화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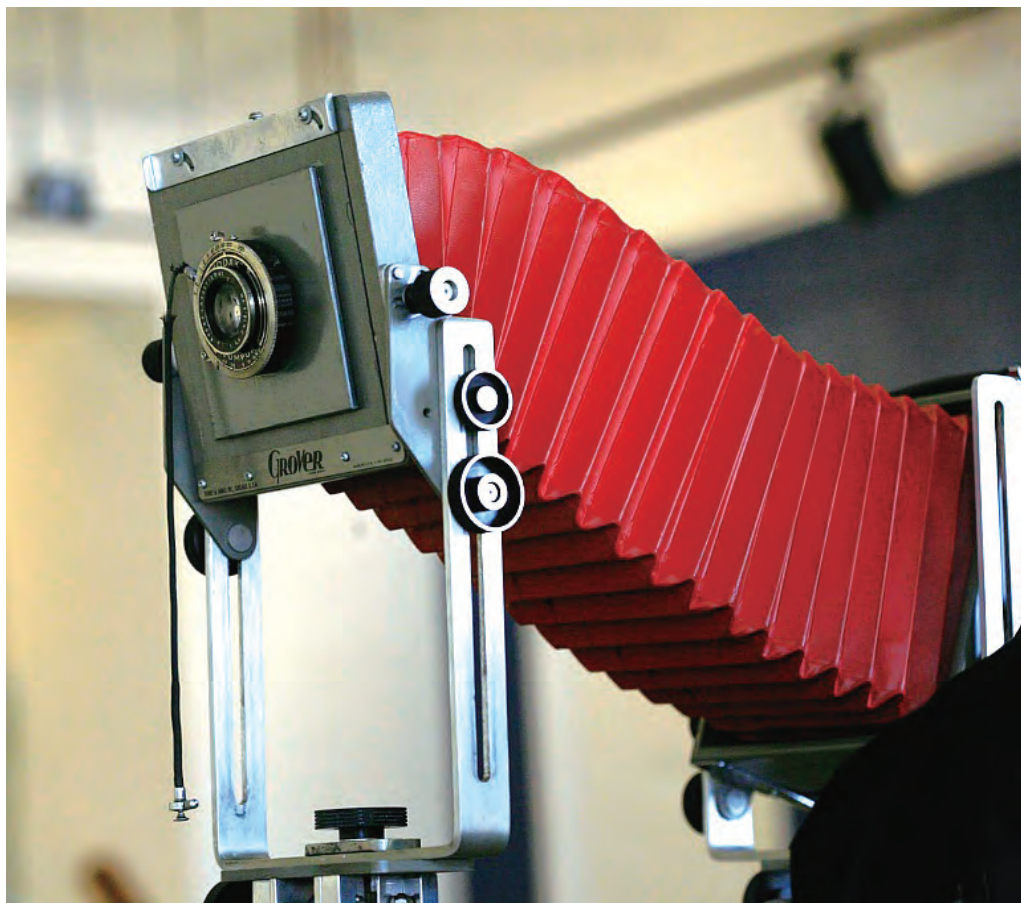
“카메라는 사실이죠. 카메라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세계카메라영화박물관 이수환 관장의 카메라에 대한
생각이다.

“그럼 영화는 뭔가요?”

“영화는 꿈이죠. 영화는 제게 꿈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꿈 터네요.”

카메라와 영화가 있는 꿈 터, 여기는 세계카메라영화
박물관이다.

지난 5월 개관한 세계카메라영화박물관은 예술의
거리에서 20년 넘게 표구점을 운영해오고 있는
이수환 관장의 남다른 취미와 열정으로 탄생했다.



20대 후반 사진촬영을 즐기던 그는 렌즈나 조리개 등에 따라 달라지는 사진의 매력에 빠져 카메라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이왕 수집했으니 박물관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희소가치 있는 카메라와 영사기를 사 모았다. 이렇게 해서 수집된 카메라는 1600여 점, 그중 300점을 이곳 박물관에 전시해놓았다. 전시 기간을 고려해 전시물을 교체할 생각이라는데, 얼마나 세심히 카메라를 관리했으면 수십 년 된 전시물 대부분이 작동이 가능하다.





세계카메라영화박물관의 전시 구성을 살펴 보면, 1관에는 사진촬영용 카메라, 2관에는 영화촬영용 카메라와 영사기, 3관에는 영사기와 환등기가 전시되어 있다.

1관에 전시된 셔터가 분리된 카메라, 렌즈가 2개인 3D카메라, 금을 입힌 카메라 등이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세계카메라 영화박물관의 백미는 2관에서 흑백만화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다. 영사기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눈앞에 펼쳐지는 영상은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세계카메라영화박물관은 그리 넓은 공간은 아니나 전시물 구성이나 내용이 어디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알차다. 전시 시간은 12시부터 21시까지고, 월요일은 휴무다. 커피와 쿠키, 입장료가 3천원이니 나들이 삼아 들러 볼 만하다. 매주 토요일에는 필름 영사기와 환등기 시연이 있다니 이제는 어디서도 보기 어려운 장면을 놓치지 말고 꼭 관람해보시라.

머리 모양에 담긴 비밀 찾기

한국미용박물관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푼젤’에는 높은 탑을 타고 오를 만큼 긴 머리카락을 가진 여주인공이 등장한다. 신비로운 머리카락을 가진 그녀를 탐냈던 마녀 때문에 부모님과 생이별해야했던 그녀는 과감히 머리카락을 잘라버린다. 그 순간 황금빛 머리카락은 갈색으로 변하고, 라푼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다분히 동화다운 설정이라 생각하겠지만 이 이야기에는 머리카락의 다양한 상징성이 담겨있다. 그 답을 찾고자하는 이에게 한국미용박물관을 추천한다.

지난 2008년 개관한 한국미용박물관은 전국 최초의 전통미용박물관으로 전통미용 관련 연구와 교육,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1층에서 3층까지 다양한 시대의 미용 유물 600여점이 전시되어 있는데, 시대에 따라, 머리카락의 상징성에 따라 변화하는 여성들의 머리모양이 매우 흥미롭다.

우리 조상들에게 머리카락은 효와 예를 표현하는 상징이자 신분, 성인, 계급, 재력을 나타내는 수단이었다. 조선시대 부녀자들은 신분이 높으면 위쪽으로, 신분이 낮으면 옆으로 가체를 쌓아 치장했다. 집 몇 채 가격 만큼 고가였던 가체를 경쟁하듯 사들여 쌓다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사망하는 이도 있었다고 한다.

서양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보이는데 바로크 시대 후기 여성들은 가발이 무거워 눕거나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웠고 잠도 앓아서 잘 정도였다. 그들이 이런 머리모양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높은 신분에 값비싼 가발을 살 정도의 재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라퐁젤의 긴 황금색 머리는 그녀가 귀한 신분이었음을 의미하고, 그 머리를 자르는 행위는 이전과는 달리 살겠다는 결연의 의미였던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에도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니 문화 탐험에 나선 보람이 있다.

한국미용박물관에 왔으니 왕비가 되어보는 경험도 놓칠 수 없다. 가체 체험 공간에 전통 의상과 가체, 장신구 등이 구비되어있으니 누구든 변신이 가능한데, 대수머리를 쓰니 머리와 목으로 느껴지는 무게가 상당하다. 어쩔 이 무게는 국모로서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돌보라는 가르침의 무게가 아니었을까?



대한민국 정보통신의 미래를 품다

장항남정보통신박물관

스마트폰 하나면 전화 통화, 인터넷, TV시청, 전자 거래 등 웬만한 일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린다고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 생활환경이 바뀌고, 영화에서나 가능하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조선대학교 본관으로 올라가는 초입에 장항남정보통신박물관이 있다. 조선대학교 내 최초 건축물이 정보통신기술의 역사와 발달과정을 전하는 박물관으로 거듭난 것으로 재미교포 의사이자 아마추어 무선통신사인 장항남 박사가 40여 년 동안 수집한 4,500여 점의 정보통신기기를 기증한 덕분이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전시물은 에디슨이 발명한 세계 최초의 원통형 축음기, 마르코니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라디오, 모스가 발명한 세계 최초의 전신기 키 등 희귀품들이다. 이외에도 초기의 전화기와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하던 송수신기 등 1920년대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에서 제작된 정보통신기기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다.

장항남정보통신박물관은 2부로 나뉘 20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기기기와 그 발달 단계를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와 함께 풀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

가족단위 체험객을 위한 주말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나도 에디슨-숏가루 이용 전화기 만들기’, ‘암호를 해독하라-모스 부호 연습’을 운영 중인데, ‘나도 에디슨-숏가루 이용 전화기 만들기’는 지금도 일부 전화기에 사용되고 있는 에디슨의 전화 수화기 제작원리를 익히는 프로그램이고, ‘암호를 해독하라-모스 부호 연습’은 사무엘 모스의 모스 부호를 익힌 후 지금도 구급신호에 사용되는 SOS신호를 모스 부호로 실습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장항남정보통신박물관 탐험을 마치고 나니 기증자 장항남 박사의 말씀이 새삼 마음에 와 닿는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입니다. 그러나 IT 역사와 발전 과정을 제대로 알아야 보다 넓은 안목으로 새로운 분야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항남정보통신 박물관이 그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Fan Motor 가변코일

4 21 HOWE 광석수신기

4 30 수직 스프링 슬라이드 크리스탈 수신기

05

세월 따라 뜨는 역, 지는 역

역마다 불이 꺼졌다
떠나간 기차를 용서하라
기차도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다
굳이 수색쯤 어디 아니더라도
그 어느 영원한 선로 밖에서
서로 포기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

정호승의 기차 중에서

이번 정류장은 광주의 관문

광주송정역

2015년 4월 2일, 지역민의 염원이던 호남선 KTX가 개통했다. 이 날은 광주송정역이 광주의 관문으로 다시 서는 날이기도 했다. 광주송정역은 2009년 4월에 이름을 바꾼 송정리역이다.

송정리역은 일제강점기인 1913년 목포와 송정을 잇는 호남선 철도 개통과 함께 문을 연 광주 최초의 철도역이다. 이듬해에 송정과 서울을 잇는 구간이 개통하면서 송정리역은 새로운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잡아갔다. 송정리역을 통해 장성과 나주, 영광이 연결되며 각 지역의 미곡과 해산물이 밀려들었고, 자연스레 미곡상, 정미소, 주조장, 생선가게, 잡화상 등이 들어서며 광주 읍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상권이 발달했다.



당시 송정리는 광주군 송정면소재지로 광주 시내까지 거리는 30여리였다. 송정리역에 기차가 서면 광주 사람들은 승용차나 인력거, 우마차 등을 이용해 광주 읍내를 오가야했다.

1922년 송정역에서 광주역으로 철도가 개설되자 광주의 관문이라는 명칭을 광주역에 내줘야 했으나 1970년대까지 송정리역은 광주권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였다. 2009년 4월 1일에는 송정리역에서 광주송정역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송정리역이라는 명칭 탓에 광주 시내의 역인지 혼란스럽다는 문제제기 때문이었다. 이후 2015년 4월 2일 개통한 호남선 KTX가 광주송정역을 지나면서 송정리역은 광주의 관문이라는 명칭을 되찾는다.

고속철도 덕분에 한층 짧아진 이동시간으로 전국은 만나질 생활권이 되었다. 서울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한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지자 광주송정역에는 남도의 멋과 맛을 즐기기 위한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열차가 도착하자 관광객을 부르는 여행사 직원의 목소리가 광주송정역 대합실에 울려 퍼지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이동하는 관광객들의 모습도 눈에 띈다. 그들의 표정에 설렘이 가득하다.

100년의 광주 철도 역사 읽기

지난 2015년 5월, 호남인의 숙원이던 호남선 KTX가 개통했다. 이제 목포에서 서울까지 2시간대, 광주에서 목포까지 1시간대면 도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은 우리 지역 곳곳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갖가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광주에 철도가 처음 들어서던 그 때도 그랬다.

광주에 처음 철도가 들어온 것은 1913년. 대전과 목포를 잇는 호남선이 완전 개통하기 1년 전에 송정리역이 생기며 기차길이 열린 것이다. 당시에는 광주로 들어오는 교통편이 발달하지 않았던 터라 광주 사람들은 마차나 인력거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광주와 송정리를 오갔다.

1914년 1월, 대전을 기점으로 목포를 종점으로 하는 호남선이 개통되었다. 이후 1922년에는 송정리역과 광주역을 오가는 전남선이 연결되었고, 1930년에는 광주에서 여수를



있는 경전선이 들어섰다. 철도 개통과 함께 도시와 역의 운명도 희비가 엇갈렸다. 호남선 개통으로 황룡강변 작은 마을에 불과하던 송정리는 광주의 관문으로 부상하며 식당, 여관, 시장 등으로 북적이는 중흥기를 맞았다.

1922년 광주 도심에 광주역이 생겨 전남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자리 잡으면서 송정리역은 광주의 관문이 아닌 호남선의 한 역으로 남게 되었다. 구십여 년이 지난 2015년, 송정리역은 호남선 KTX의 개통으로 다시 광주의 관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참으로 묘한 운명의 엇갈림이다.

광주 철도는 올해로 개통 102년을 맞았다. 호남선 KTX 개통에 따른 기대감이 철도의 역사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갈수록 줄어드는 호남선 정거장 상황을 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1900년대 철도가 개통되면서 이전까지 주요 교통수단이자 물류의 중심이었던 뱃길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다. 2000년대 고속철도의 등장은 우리의 도시 풍경과 생활문화를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궁금하다. 발전은 변화가 없이 이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 무엇을 위한 발전이고, 누구를 위한 발전인지 깊은 물음이 함께 하길 바란다.

사라진 기차 행선지로의 초대

운암역

송정리역에서 광주역까지 철도가 개통한지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통의 중심으로 부상하며 사람들로 붐비는 기차역이 있는가 하면, 더 이상 기차가 서지 않는 기차역도 있다. 사라진 행선지가 된 그 역으로 떠나보자.

역사 속 장소도 시대의 변화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일까?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 있는 운암역은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주소지를 찾아가니 철로와 그 옆 공터가 남아 이곳이 역이 있던 자리임을 알려준다.

운암역은 나주에서 광주로 통학하던 학생들이 이용하던 간이역으로 한일 학생 간 최초 충돌사건이 발생한 역이다.



일명 '운암역 개고기 사건'은 철로변에서 개를 잡던 이들을 본 일본인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폄하한 것이 발단이였다. 이후 한일 학생들 간 갈등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나주역에서 조선인 여학생 희롱사건이 발생하고 조선인 학생들이 항일운동에 나서면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운암역은 1958년 북광주역으로 불리다가 1974년 폐역이 되었다.

사라진 기차 행선지로의 초대

남광주역

시대 변화에 따라 기차역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운암역의 역사가 그렇고, 남광주역의 노점 어머니들이 그렇다. 오늘도 기차가 서지 않는 남광주역에는 새벽부터 장이 서고, 물건을 사고파는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지고 있다.

1930년 12월 광주~여수 구간 경전선 개통과 함께 학동에 기차역이 개설되었다. 당시에는 신광주역으로 불리다가 1938년 남광주역으로 이름을 바꿨다.

지난 2000년 폐역된 광주역은 광재구 시인의 시 '사평역에서' 실제 모델이 된 역으로 유명하다. 시인은 눈 오늘 겨울날 역 대합실에서의 경험을 배경으로 암울한 현대사의 아픔을 시로 승화시켰다.



남광주역은 새벽 일찍 인근 지역에서 올라오는 농수산물이 판매되는 남광주 시장으로도 유명했다. 1960년대만 해도 소규모 좌판이 전부였던 남광주 시장은 철도청에서 역 주변의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그곳에 상가가 들어서면서 번창하기 시작했다. 기차가 멈춰서면 자기 몸채만한 보따리를 들고 온 어머니들이 장사진을 이뤘고, 좌판이 펼쳐지는 곳마다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 광경이 좋아 남광주시장을 찾는 이들도 많았다.

2000년 역이 폐쇄되면서 예전의 흥청거리는 시장 분위기는 줄었지만, 남광주 시장은 여전히 광주시민이 즐겨 찾는 시장이다. 각 항구와 포구의 어판장에서 새벽차로 올라온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수산시장으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것인데, 남광주시장은 2015년 전통시장 야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 2월부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시장이 열린다. 먹거리, 청년상인, 문화를 키워드로 꾸며질 남광주시장 야시장이 지역의 활력소이자 명소로 자리 잡길 기대해본다.

역의 또 다른 의미를 아시나요

경양역 & 선암역

흔히 역(驛)하면 열차가 떠나거나 서는 곳을 의미한다. 그런데 역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국어사전에 보면, 역은 중앙 관아의 공문을 지방관아에 전달하여 외국 사신의 왕래, 벼슬아치의 여행과 부임 때 마필을 공급하는 곳이다. 고려나 조선시대의 주요 교통수단은 말이었고, 지역마다 말을 공급하는 역이 있었다는 것인데, 광주에도 그런 역이 있었으니 경양역과 선암역이다.

조선시대 광주에는 두 개의 역로가 설치됐다. 동쪽에는 경양역이 서쪽에는 선암역이 있었는데, 경양역은 담양, 화순, 능주, 동북, 순창, 옥과, 남평 지역의 9개역을 관리하는 지금의 도로관리청이었다. 역의 수장인 찰방은 통신사무 외에 지방관리에 대한 보고, 국사범 수감이나 이송 등을 수행해야했다.



경양역터 표지석

이런 이유로 역은 지방관아로부터 행정적 독립성을 부여받았고, 운영 인력도 6방 관속과 노비, 말을 기를 땅과 관리자, 마줄 등 천 여명에 달했다.

우산동 서방시장 건너편에 경양역터 표지석을 만날 수 있는데, 조선시대 경양역의 흔적은 지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향토사학자 김정호는 말바우 시장의 ‘말바우’란 지명을 지금의 말바우 시장 인근에 경양역의 말을 관리하던 목장이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았다. 조선시대에는 역의 등급에 따라 구비해놓은 마필 종류와 수가 달랐는데, 3등급 역이었던 경양역에는 말 20필을 관리하던 목장이 있었고, 중앙관리나 지방관찰사가 역마를 사용하고 할 때는 마패를 사용했다.

역원제도는 1895년 고종 32년에 폐지되었고, 1918년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한 조선총독부는 역의 경제적 토대였던 역둔토를 국유화하고, 이를 팔아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에서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고, 초기 식민정책자금으로 활용하려 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우산동에는 ‘비석거리’가 있었고, 역대 찰방들의 송덕비가 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는데, 1970년대 동문로 확장으로 광주공원에 이설되면서 비석거리는 사라졌고, 2003년 2기의 경양역 찰방 송덕비는 중흥동 향토의 거리로 옮겨졌다.

광주의 서쪽 선암역은 황룡강을 바라보는 어등산 기슭에 설치되었다. 선암역은 나루터를 끼고 있는 역으로 정조 때 원래 자리였던 소촌동에서 황룡강의 선암 나루 근처로 옮겨왔다. 선암역과 원이 있던 자리는 송정~영광 구간 8차선 확장공사와 평동공단 조성 등으로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없었는데, 옛 선암역촌 어귀에서 선암역 찰방이었던 박경주 송덕비를 만났다. 조선시대 역장, 역졸, 아전, 급주, 수인 등 역을 운영하는 인력의 급료는 역 구역 안에 거주하는 양민과 보인들에게서 거둬들이는 수세전으로 충당했다. 옛 선암역촌 어귀에서 만난 송덕비에는 가뭄 때 소작료를 면해주었던 선암역 찰방 박경주의 이야기가 새겨져있다.

전남 서남부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관문이었던 선암역과 선암나루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이다. 제주도로 유배 갔던 우암 송시열이 다시 정적들의 요구로 국문을 받으러 가는 길에 이곳을 거쳐 갔고, 동학농민운동 당시 오권선의 동학군과 나주 수성군이 격렬히 대치했던 곳이라고 한다. 19세기 후반 개항과 함께 서구의 선진기술이 도입되면서 교통과 통신의 중심이었던 역은 전신, 전화, 철도, 도로 등으로 교체되었다. 선암역은 1895년 역원제도 폐지와 함께 사라졌고, 선암나루는 1913년 송정리역 호남선 개통으로 전남 서남부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관문이었던 선암나루는 그 기능을 잃어갔다. 1922년 송산교가 건설되면서 선암나루는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다.



경양역 철방 송덕비



선암역 철방 박경주 송덕비

06

무작정 시간여행,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우리의 과거도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환기는 억지로 그것을 구하려고 해도 헛수고요,
지성의 온갖 노력도 소용없다.
과거는 지성의 영역 밖,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물질적인 대상 안에
(이 물질적인 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감각 안에) 숨어 있다.
이러한 대상을,
우리가 죽기 전에 만나거나 만나지 못하거나 하는 것은
우연에 달려 있다.

마르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중에서

시대가 가니 거리도 가네

나무전거리

광주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동구에는 시간여행지가 참 많다. 그 중 하나가 나무전거리다. 계림로터리에서 양화마트까지 이어지는 나무전거리는 광주읍성이 있을 때부터 땔감 나무를 거래하던 시장이 있던 자리다. 2009년 나무전거리 활성화사업으로 나무전거리를 알리는 상징조형물과 간판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나무전거리의 탄생 시점은 19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난한 농민들이 당시 고급 주택가가 있던 동명동, 장동, 궁동 등에 땔감을 팔기위해 인근 지역에 모여들었고, 자연스레 나무전이 형성되었다.



땃감은 주로 무등산 일대에서 가져온 것들이었는데, 불쏘시개용 잔가지부터 소나무 장작까지 다양했다고 한다. 광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화순에서도 땃나무를 지고 나무전거리를 찾았다.

땃감 장사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 땃감을 찾아 산을 헤매고, 나무가 모아지면 지게에 싣고 산길을 넘어야했으나 땃감 나무는 험값이었다. 그래도 생계를 위해선 몇 톤이라도 모아야 했던 가난한 농민들은 땃나무를 구하기 위해 산으로 향했고, 우리 산하는 남벌로 헐벗어 갔다. 광주선과 경전선의 분기점으로 기차가 오가던 산수동 나무전거리는 1950년대까지 나무를 사고파는 사람들로 붐볐으나 연탄이 등장하면서 땃감 나무가 아닌 목재와 문짝을 파는 문짝거리가 되었다.





나무전거리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대림목공소’에 들어서니 가지런히 정돈된 톱납들과 연장들. 그리고 여기저기 파이고 찍힌 작업대가 그 역사를 말해주는데, 저렴한 중국산 가구와 목재가 들어오면서 직접 문살을 짜고 틀을 제작해 설치하는 것은 옛말이 되었다고 한다.

건축자재의 상권마저 중흥동으로 옮겨가면서 나무전거리를 찾는 발길도 예전 같지 않다.

나무전거리 곳곳에서 울리던 요란하고 활기찬 톱질 소리와 망치 소리도 예전 같지 않지만, 나무전거리에는 나무와 인생을 함께 해온 장인들이 있다.

우리 집에만 있는 문짝이라며 나무문짝을 자랑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산수동 나무전거리의 내일을 본다. 지난 수십 년을 그랬듯 변함없이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망치질을 하는 그들의 오늘은 분명 빛난 내일이 될 것이다.

20년 만에 돌아온 광주 대표 관광지

지산유원지

1978년 4월, 무등산 향로봉을 향하는 길목에 차들이 늘어섰고, 나들이에 나선 인파로 붐비고 있었다. 지역민을 위한 놀이시설, 지산유원지가 문을 열었기 때문이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회전목마랑 바이킹 등 놀이시설이 눈길을 사로잡았고, 리프트를 타고 오른 향로봉에서 바라본 광주는 매력적이었다. 이후 지산유원지는 신혼여행객과 수학여행단이 넘쳐나는 광주의 대표적 관광지가 되었다.

그러나 지산유원지의 호황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시설 노후화와 대형 테마파크의 등장으로 쇠락해가다 1994년 사업자의 부도로 호텔 등 일부시설을 제외한 유원지 기능을 상실하고 만다. 이후 20여년이 지나도록 지산유원지는 흥물처럼 방치되었고, 광주시민의 기억에서 사라져갔다.



2015년 5월, 지산유원지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다양한 개발정책 제안에도 법적·제도적 제약 때문에 미뤄지던 지산유원지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1980년대 그 시절처럼 관광객들이 리프트를 타기위해 줄을 섰고, 2인승 리프트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실 새 없이 향로봉 정상으로 실어 날랐다. 그런데 기대감으로 오른 향로봉에는 이렇다 할 즐길 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 새 단장을 마치고 몇 개월 전에 오픈했어야 할 모노레일도 카페도 전망대도 여전히 공사 중이고, 운영계획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팔각정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광주 풍경과 향로봉 주변 봉우리를 보니 조금 위안이 된다.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광주 시가지 풍경은 넓고 높고 다양해졌다.

누군가에게는 신흠 여행지였고,
누군가에게는 학창시절 수학 여행지였고,
누군가에게는 가족나들이 장소였던 지산유원지.
그곳에 서니 추억으로의 길이 열리는 듯하다.

추억의 장소란 언제든 그곳에 서면 그 때 그 시절로
우리를 데려다주기에 참으로 소중한다.

당신이 기억하는 지산유원지는 언제인가?





광주 안의 작은 중국

광주화교학교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가져온 변화는 그야말로 세계를 들었다 놔다한다는 것.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으니 중국 유학이나 중국학교 입학에 대한 치맛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며 계림동에 자리한 광주화교소학교에도 한국인 학생의 입학이 쇄도했다. 그러나 2015년 현재 광주화교소학교는 전교생이 10명 남짓한 교육기관으로 폐쇄의 위기에 처해 있다.

광주화교 역사의 시작은 1930년대 인천으로 들어온 화교들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였다. 광주화교협회 왕영공 가족에 따르면 화교들은 동족끼리 결혼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화교 배우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고 한국인과 결혼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광주에 정착한 화교들은 1948년 광주화교모임을 결성했고, 중화민국 '교무위원회'에 신청해 '광주화교협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화교들은 1948년 양림동 제중병원 병동에 광주소학교를 설립했다가 계림동으로 현재의 화교소학교 자리로 이전해 판자건물에서 교육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 화교들과 다른 지역화교들의 모금으로 학교건물을 지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교육과정을 50여 년 넘게 운영해왔다.

그러나 정식학교 인가를 받지 못한 탓에 우리나라 학교에 진학하려면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데다 교육을 위한 지원도 부족했던 탓에 학생 수 감소를 막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방과후 교육으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화교학교나 중국어학원들이 들어서며 광주화교소학교는 폐교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2015년 현재 광주화교소학교는 중국화교 중국어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유치부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 안의 중국을 만날 수 있었던 광주화교 소학교.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광주에 들어와 이웃이 되고, 벗이 된 광주화교의 역사를 만났다. 시대의 변화가 이곳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알 수 없으나 광주 안의 중국으로 빛나던 역사는 엄연할 것이다.



지역민이 세운 광주 최초의 교회

삼도교회

역사상 최초라는 기록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2012년 광주 지역 교회사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 광산구 삼도동에 자리한 삼도교회가 1899년에 설립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 지역 최초의 교회가 된 것이다. 이전까지 광주 지역 최초의 교회는 1904년에 설립된 양립교회나 광주제일교회나를 놓고 설전이 오가고 있었다. 삼도교회의 등장은 지역 최초의 교회이자 지역주민 스스로 세운 자생적 교회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것은 1897년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나주에 내려와 선교부를 설치하면서였다.

당시 전남 지방의 중심은 나주였기에 당연한 선택이었는데, 선교사들은 향교 유생들의 극심한 반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선교를 위해 구입했던 대지와 건물을 모두 팔고 나주를 떠났다. 그렇게 꺼져 버릴 것 같던 선교의 불씨를 되살린 이는 선교사들의 한국어 선생이었던 이문오였다. 그가 생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여막을 예배소 삼아 교회를 시작한 것이 삼도리 교회로 지금의 삼도교회다.

선교사들마저 힘들어 포기한 지역에서 주민 스스로 교회를 설립해 선교활동을 펼쳤다니 대단한 믿음인데, 그 덕분인지 설립 이듬해 가옥을 매입해 예배당으로 사용했고, 몇 년 후에는 건물을 증축하는 등 삼도교회는 빠르게 성장해갔다.

당시 삼도교회는 나주를 비롯해 광주, 함평, 영광 등에 교회를 개척해나가며 광주 지역 기독교 선교의 거점으로 활약했다.

1897년 설립 이후 삼도교회는 광주·전남 지역의 근대사의 현장이었다. 의병들의 봉기로 핍박을 받기도 했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몰살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오직 사랑의 힘으로 지역과 지역주민의 아픔을 보듬어 온 삼도교회, 작은 농촌 교회가 이루어 낸 자생적 선교 역사가 새롭게 조명되길 기대해본다.



평범한 농가 일상에서 비범함을 보다

김봉호 가옥

산업단지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광산구 하남, 현대식 건물이 늘어난 그곳에 눈에 띄는 가옥이 한 채 있다.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5호인 김봉호 가옥이다.

1946년에 건립된 전형적인 농촌가옥인 김봉호 가옥은 1,000여 평의 대지에 안채, 문간채, 헛간, 돈사, 잠실 등이 자리한 민속학적으로 매우 귀한 공간이다. 그러나 1999년 대규모로 추진된 하남지역 택지 조성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처하게 된다. 김봉호 어르신이 고재유 전 광주시장을 찾아가 후세에 남겨야 할 자료임을 설명하고, 전통가옥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00년 5월 18일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5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형적인 부농의 가옥인 김봉호 가옥은 상류층 가옥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공간의 구성과 배치, 재료의 짜임새를 갖추었다. 정면 6칸, 측면 1칸으로 구성된 목조 한식 ‘八(팔)’자형 기와집으로 서남쪽을 향하고 있다. 안채의 방구성은 ‘一(일)’자형으로 되어있고, 옆으로 부엌방, 부엌, 큰방, 대청, 건넌방이 배치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큰 방과 대청, 그리고, 건넌방 위에 대형 다락이 있다는 점이다.

공루라고 불리는 다락은 보통 1칸 정도의 규모지만, 김봉호 가옥에서는 3칸 모두를 공루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 주택에서 공루는 농기구를 수납하거나 돈이나 귀한 것을 숨겨 놓는 수장공간, 삼베나 모시를 짜는 생활공간, 낮잠을 위한 피서 공간 등으로 활용되었으니 김봉호 일가의 생활문화를 짐작해볼 수 있다.



김봉호 가옥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전통 농촌가옥의 멋과 농촌 생활문화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활공간을 민속박물관으로 내놓은 것인데, 작은 농기구로 집안 구석구석을 단장하는 어르신의 평범한 일상에는 역사와 전통을 지키려는 이의 비범함이 스며있다.



지역의 아픔을 보듬은 하나님의 집

북동성당

광주시 북구 북동 33번지, 그곳에 광주 최초의 성당, 북동 성당이 있다. 붉은 벽돌과 종탑. 그리고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된 서양식 성당은 1938년에 지어져 광주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광주에 천주교가 전래된 것은 1801년 신유박해 당시 광주읍으로 홍재영과 그의 가족이 귀양을 오면서였다. 1839년 기유박해 때 광주의 천주교 신자 대부분이 체포돼 전주감영에서 순교함으로써 위기를 맞은 천주교는 1929년 일본인 신자들이 광주에 들어오면서 활동이 재개되었다. 광주 지역 첫 번째 본당인 북동성당은 1933년 설립되었으나 지금의 북동성당 건물이 들어선 것은 1938년이었다.



북동성당은 광주 지역 최초의 서양식 성당이자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가 한국에서 지은 첫 번째 성당이였다. 중국인 가요셉이 설계와 시공을 맡은 북동성당은 전면에는 종탑이, 후면에는 제대와 감실이 배치되어 있다. 외벽은 붉은 벽돌로 쌓았고, 종탑과 창틀, 문은 화강석 원형, 반원형 아치로 장식했다.

내부로 들어서니 성당건축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제대와 감실이 눈에 들어온다. 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감실은 그리스도 자신인 성체를 모신 곳이기 때문이다. 성당건축은 제대와 감실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당 내벽과 천장을 특별한 장식 없이 흰색 회벽으로만 처리해 신자들이 제대와 감실에 집중하게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동성당은 몇 차례 보수공사를 거쳤고, 제의실 자리에는 소성당이 들어섰다. 1999년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25호로 지정되면서 광주시의 지원으로 내부 보수공사를 마쳤다.

1938년부터 광주를 지켜온 북동성당은 지역의 아픔을 보듬는 성당으로 유명하다. 일제강점기에 신부와 신자들이 간첩혐의로 체포돼 수모를 겪었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인민군 주둔지로 침탈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피신 온 시민과 학생들의 방패가 되어 계엄군의 총탄을 막아냈고, 성당과 사제관에는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광주공용터미널과 마주한 탓에 북동성당은 ‘터미널 성당’으로 더 유명했다. 광주를 방문한 외지 신자들은 짬을 내서 성체조배나 기도를 올렸고, 차비가 급한 여행객들이 본당 사무실에서 도움을 구하기도 했다. 터미널 이전으로 주변 풍경은 많이 달라졌으나 지역의 아픔을 보듬는 북동성당의 모습은 변함이 없다.

세계 1위 대한민국을 키운 전통

국궁장

세계대회가 열릴 때마다 우리에게 금메달을 안기는 효자종목이 있다. 바로 양궁이다. 탄탄한 체력과 더불어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양궁에 있어 그야말로 톱클래스인데, 그 바탕에는 오랜 세월 활쏘기로 심신수련을 해온 국궁장의 전통이 있고, 그 전통은 지금도 엄연하다.

광주의 대표적 활터인 관덕정은 사직공원 내에 있다. 관덕정은 1963년 송호립 전남도지사와 정래혁 광주 시장의 지원으로 세워진 것으로 활터의 역사는 53년에 불과하다. 광주읍지에 따르면 관덕정은 광주객사의 북쪽인 북문에 있었고, 현재의 위치로 보면 광주 우체국과 충장서림 일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시대에는 활쏘기를 향사례(鄉射禮)라고 하여



지방교화의 방편으로 활용했다. 지방수령들은 1년에 두 차례 지역양반들을 불러 주연을 베풀고, 활쏘기 시합을 즐겼는데, 그 무대가 관덕정이었다.

일제강점기엔 광주공원에 있던 대한정이 관덕정으로 불렸으나 1959년부터 전주 최씨 문중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사직공원 관덕정은 이후에 설립됐는데, 1,300평의 방대한 규모로 공사가 서있는 정자에서 표적까지의 거리가 145미터로 웬만한 힘으로는 과녁까지 화살을 날리는 것도 힘들 듯 한데, 오랜 세월 심신을 단련해온 덕분인지 관덕정 공사들의 화살은 날아가는 족족 과녁 중앙에 꽂힌다. 그럼에도 환호성은 없다. 모든 활터에는 습사무언(習射無言), 활을 배울 때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행동에 있어서도 예를 갖추고 신중을 기해야하기 때문이다.



송무정 松武亭

송무정 松武亭

무정



광주에는 관덕정 외에도 두 개의 활터가 있다. 소촌동의 송무정과 매곡동의 무등정이다. 송무정은 1956년에 송정공원 일대에서 별다른 시설 없이 궁술을 이어오다가 1972년 지역 유지들과 궁사들의 노력에 의해 정자를 신축하며 국궁장의 모습을 갖추었고, 무등정은 1985년에 개장한 활터다.

국궁(國弓)

활과 화살을 사용해 표적을 맞추는 전통무술로 선사시대부터 행해졌다. 조선시대까지 사용되던 활은 전시용, 수렵용, 연약용, 습사용 등 7종이 있었는데, 나머지 활은 전해지지 않고, 운동용 각궁만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전통화살인 각궁은 쇠뿔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한국의 대나무, 물소뿔, 쇠심, 구지뿔나무, 참나무, 화피로 만들어진다. 각궁은 활을 쏘는 사람의 기력에 따라 강궁에서 연하까지 7단계로 나뉜다.

07

마을에서 역사를 만나다

역사에 대한 관심은
자신에 대한 관심에 다름 아니다.
역사는 지나간 과거 아닌 '앞선 과거'
미래로 돌아오는 내 삶의 문제니까

박노해의 역사 중에서

당연한 도리는 배움에 달려있다

유애서원

“가족과 친척들의 안전도 생각하기 바랍니다.”
 하고 가족과 친척들이 간하니
 “내가 어찌 배운 것을 저버리고 스스로 불충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였다.

『국역국조인물고』에 실린 내용으로 석탄 이신의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광해군의 폭정에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석탄 이신의(1551~1627)는 분연히 상소를 올렸고, 이듬 해 회령으로 유배되었다.

1754년 광주 유림들은 배움을 실천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었던 석탄 이신의의 학덕과 충절을 본받고자 유애사를 건립했다.



석탄 이신의 선생의 거문고

당시에는 지역 유림의 학문적 우위와 정치력 강화, 향촌민 교화를 목적으로 학덕이 높은 인물을 배향하는 서원 건립이 활발했다. 그러나 서원의 양적 증가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자 1868년 흥선대원군은 서원철폐령을 내렸다.

이 시기 유애사도 훼철되었으나 유림들이 금서재를 지어 석탄 이신의의 서적과 어필병풍, 거문고 등 유품을 보관해오다가 경장각을 지어 옮겼다. 훼철된 지 81년만인 2000년에 경장각 후면에 사우를 지어 석탄 이신의를 모셔왔고, 2005년 6월 20일 유애사는 유애서원으로 승격되었다.

석탄 이신의 종가 소장 고문서와 함께 귀중한 유물인 거문고는 1618년 회령유배시절에 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석탄 이신의가 거문고를 타며 지은 '사우가'는 고산 윤선도의 '오우가'에 비해 24년이나 앞선 시조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목민관으로서 석탄 이신의의 면모는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조의 경연석상에서 양리의 선정에 대해 논의를 하던 중 이서는 “이신의 치민을 살펴보았는데 양사라고 할 만 합니다. 그가 일찍이 해주목사로 있었을 때 임기 만료되어 교체되어 떠나는 날 송사를 결단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폐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신의가 해주를 다스린 지 6년 만에 관고가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구피(狗皮)가 3천량이나 쌓였는데 떠나는 행장은 쓸쓸할 정도였으므로 당시에 칭송하였습니다”라고 전할 정도였다.

석탄 이신의는 애민의 정신으로 절의를 실천한 목민관이었고 숙종은 그에게 문정공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인생에 있어 무엇을 앞에 두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이들에게 평생 학문적 목표를 당연한 도리를 배움에 두고, 이를 실천하고자 했던 석탄 이신의의 글귀를 전한다.

“좋은 안주를 먹어보지 않은 자가 그 맛을 모르는 것처럼 지극한 도리를 배우지 않은 자는 그 선을 모른다, 그러므로 선은 도리에 들어있고 도리는 배움에 달려있다.”

화답사

화정동이라는 마을 이름도 화담사의 ‘화’와 옛 마을 이름인 송정의 ‘정’을 따서 화정이라 했다고 한다.



1735년에 건립된 화담사는 문절공 정수충(1401~1469)의 영정을 모시는 사우로 출발해 1796년에는 충장공 민제장(1671~1728), 1809년에는 목은 정희, 1907년에는 약포 정오도(1646~1732), 1910년에는 문경공 정초(미상~1434)를 추배했다. 이후 광주 유생들의 노력에 의해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을 갖춘 화담사는 서원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잠시 제사를 지내지 못했으나 광주 유생들의 발의에 의해 1905년 다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화담사가 두문불출의 유래와 관련이 깊은 것은
두문동 72현인 정희 선생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운의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어원 500
가지’에 보면, 두문동은 경기도 개풍군 광덕산 서쪽의
골짜기로 고려 유신들이 조선에 반대하여 벼슬을
거부하고 은거하며 살던 곳이다.

두문동 72현이란 이성계가 조선 국왕에 즉위하자
고려에 충성을 다하고 지조를 지키겠다며 조복을
벗어던지고 두문동에 은거하며 벼슬살이를 거부한
유신 72인을 이르는 말이다. 당시 조선 왕조는 두문동을
포위하고 고려 충신 72인을 불살라 죽였다고 한다.
두문동에 관한 기록은 두문동 72현의 후손이 기록한
「두문동실기」에 실려 있다.





정조가 극찬한 최고의 시인을 만나다

송호영당

정조가 조선 최고의 시인이라 극찬했던 놀재 박상(1474~1530). 강건하면서도 구성이 완벽한 그의 시에는 불의에 맞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곳곳이 지켜내는 절의정신이 담겨 있다. 전라도사 부임시절의 일화를 보면, 놀재 박상의 절의정신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

당시 나주에는 연산군의 후궁인 딸의 권세를 믿고 우부리가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우부리를 벌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분노한 놀재는 우부리의 악행을 매질로 다스리다 목숨을 빼앗고 만다.



無等山前曾把手

무등산 앞에서 만나 손을 잡았더니

牛車草草故鄉歸

소 수레 비뻔게 고향으로 돌아가네

他年地下相逢處

훗날 지하에서 서로 만나는 곳에서

莫說人間謾是非

부질없이 인간 세상의 시비를 말하지 마라

逢孝直喪 국조시산 303면에서

임금이 아끼는 애첩의 아버지를 죽게 했으니 화를 피하기 어려울 터. 박상은 사실을 고하기 위해 한양으로 향했는데, 마침 그를 체포하러 내려온 금부도사와 길이 엇갈려 화를 피할 수 있었다. 당시 고양이 한 마리가 묘한 흥내를 내며 큰 길을 피해 셋길로 들어서자 이상하게 여겨 따라 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이후 정양사라는 절에 고양이 제사를 모시도록 하고, 광산구 오산마을에 묘답까지 마련해 공양했다고 한다.

중종반정 이후 놀재는 사간원 헌납에 발탁되었으나 인사행정의 공정치 못함을 간했다가 한산 군수로 자천되었고, 담양부사로 재임하던 당시에도 억울하게 폐위된 중종 첫 부인 신씨의 복위를 간하는 상소를 올리는 등 평생 강직하고 바른 처신을 일관했다. 이러한 면모 못지않게 유명한 것이 놀재 박상의 필력이다.

정조는 놀재의 시에 대해 “고아하고 강건함을 후인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고 평하며 권필, 박은, 최립 등 당대 문인들의 장점을 모두 갖춘 조선 최고의 시인이라 칭송했다. 이수광의 지봉유설에도 당대 뛰어난 시인으로 소개된 놀재 선생은 1,300여 수의 시를 남겼고, 임억령, 송순, 정만중 등 걸출한 문인들을 배출하기도 했다.

1728년 놀재 박상 선생의 후손인 충주 박씨 문간공파에서 서창동 절골마을에 사당을 지어 놀재 박상과 사암 박순의 영정을 모셨고, 임금이 ‘송호’라는 이름을 내렸다고 한다. 현재 송호영당은 광산구 소촌동으로 이전했고, 놀재 박상 선생의 묘소는 여전히 서창동 절골마을에 남아있다.



의리가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

윤리사

아파트로 둘러싸인 윤리마을길을 지나 금당산 산책로 초입에서 만나는 윤리사.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 상당한 족적을 남긴 회재 박광옥(1526~1593)을 모신 사당이다.

「국역국조인물고」에 따르면, 회재 박광옥은 운봉현감, 전라도사와 충청도사, 영광군수, 밀양군수 등 지방 수령으로 부임해 학교를 짓고 지역인재양성에 힘썼다. 영광과 밀양에서는 회재의 공덕을 기리는 비석을 세우기도 했다.

벼슬에서 물러나 풍암동에 머물던 회재는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목사에게 관군을 보내 서울을 호위하라고 조언하는 한편 각 고을에 통문을 보내 의병을 조직한다. 이후 고경명, 김천일과 함께 왜적을 물리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으나 병 때문에 참전하지 못하고 후방에서 그들을 도왔다.



이런 와중에 조정에서 복직하라는 어명이 내려지자 회재 박광옥은 승문원 판교로 올라갔다가 다시 나주목사로 내려왔다. 다들 그의 건강을 걱정했으나 회재는 “병이 심하나 의리가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며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열중했다.

평소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중요하게 여겼던 회재 선생은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합하고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하며 다시 왜군과의 전투를 준비했다. 그러나 몸을 돌보지 않고 의병활동에 매달린 탓에 병은 더욱 악화되었고, 선조 26년 1593년에 세상을 떠났다.

회재가 남긴 『회재집』 목판은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는데, 임진왜란 이전과 전쟁 당시의 기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임진왜란 전후를 연결하는 시대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가난할수록 더욱 즐겨야 한다

낙암정

고봉 기대승(1527~1572)은 퇴계 이황이 ‘세상일에 두루 통달하고 실행력이 있는 유학자’라 칭하며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서신으로 사단 칠정을 논했던 대유학자다. 대표적인 유적인 월봉서원에서는 고봉의 선비 정신을 잇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다.

고봉 기대승 관련 유적으로 찾아볼 만한 곳으로 낙암정이 있다. 성균관 대사성을 사직하고 귀향한 고봉이 지었다는 정자인데, 낙암이란 이름은 퇴계 선생의 서간 중 ‘貧當益可樂(가난할수록 더욱 즐겨야 한다)’에서 가져온 것으로 퇴계 선생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한다.



광산구 신흥동 신촌마을로 들어서 행주 기씨 문중제각인 청량재를 지나면 낙암정이 나타난다. 고봉 기대승은 이곳에서 유림들과 시무를 논하고 성리학을 강론했는데, 「낙암이건기(樂庵移建記)」에 따르면 현재의 정자는 후손들이 몇 차례 중수해온 것이다.

기묘명현인 조광조의 제자답게 경제택민(經濟澤民)을 지향했던 고봉 기대승은 명종과 선조 두 임금의 스승이었고, 이황과 쌍벽을 이룬 거유(巨儒)였다. 호남 유림들은 낙암정 밑에 망천사를 세워 고봉 기대승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위업을 기리는 석채례(釋菜禮)를 모셨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고 한다.

이후 호남 유림들은 월봉서원을 지어 고봉 기대승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는 제를 올리고 있다. 월봉서원에 비해 너무도 소박한 낙암정에 앉으니 가난할수록 더욱 즐겨야한다며 마음을 나눴을 고봉과 퇴계의 모습이 아스라이 그려진다.



오남재

‘내가 드디어 남쪽에 내려왔다’는 뜻을 담은 오남재는 고봉의 부친인 물재 기진 제각이다. 물재 기진은 사화로 동생을 잃은 것에 크게 상심해 광주로 내려왔고, 아들이 태어나 상당한 나이가 됐음에도 서당에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일찍 어머니를 여윈 고봉 기대승에게 아버지는 첫 스승이자 삶의 뿌리였는데, 고봉의 ‘과정기훈’에는 부친의 교육관이 그대로 담겨있다.

“교육의 목적은 과거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효도하고 우애하며 조상을 욕되게 하지 않는 인륜적인 것이어야 한다.”

고봉 기대승 나무

광산구 두동마을에는 고봉 기대승이 손수 심었다고 전해지는 은행나무가 있다. 공자를 숭상했던 고봉이 공자가 제자들에게 글을 가르치던 행단을 따르고자 은행나무를 심었을 것이라는데, 수령 480여 년인 노거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지금도 고봉 기대승 나무로 불리며 유학과 선비정신의 상징이 되고 있다.



덕산에서 만난 동학지도자

손화중

광주천과 극락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한 덕흥 마을 서남쪽에는 야트막한 덕산이 있다. 430년 된 느티나무와 시민 쉼터가 조성된 이 자리는 1894년 전남 지역을 총괄하던 동학지도자 손화중이 진을 치고 치열한 전투를 치른 곳이라고 한다.

정읍 출생인 손화중은 일찍 동학에 입도해 접주로 활동했고, 전봉준, 김개남과 함께 동학운동의 3대 지도자였다.

부드러운 인상과 뛰어난 설득력으로 전라도내에서 가장 많은 교도를 거느린 대접주였던 손화중은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상속에서 검단대사 비결록을 꺼내서 어디론가 사라져 신비로운 인물로 여겨졌다.



이야기는 이렇다. 선운사 뒤 도솔암에 검당대사라는 중의 모습을 한 석불이 있고, 세상에 드러나는 날에는 서울이 망한다는 비결이 석불의 배꼽에 들어 있었다. 손화중이 이 비결을 꺼내서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인데, 이 사건으로 손화중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잡혀갔으나 손화중만 잡히지 않았고, 그는 더욱 유명해졌다.

전봉준의 설득으로 1차 봉기에 나선 손화중은 보국안민의 기치를 내걸고, 관군과 치열한 전투를 펼쳤고, 1894년 4월 황토현 전투 승리에 이어 삼남지방을 승전을 휩쓸며 전주성에 입성했다. 접전을 벌였던 농민군과 관군 모두 타격이 컸는데, 조선정부가 청에 원군을 요청하자 전봉준은 관군과 폐정개혁을 실시하는 전주화약을 맺고, 전주성에서 해산한다. 그러나 청의 개입을 빌미로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와 내정간섭에 이은 친일내각을 세우자 동학농민군은 반일을 기치로 2차 봉기에 나선다.

전봉준이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북상할 때 손화중은 관군과 일본군이 나주 쪽에서 기습해올 것을 대비해 덕산에 진을 치고 나주성 공략에 나섰다. 그러나 수차례 이어진 전투에서 농민군이 계속 패하면서 보급로까지 차단되자 북쪽으로 후퇴한 농민군은 12월 1일 해산한다. 이후 부안에 숨어 있던 손화중은 관군에 붙잡혀 서울로 압송되었고, 1895년 3월 30일 전봉준과 함께 최후를 맞이했다.

죽봉로에서 한말 의병 찾기

의병장 김태원

國家安危在頃刻

국가의 안위가 경각에 달렸거늘

意氣男兒何待亡

의기남아가 어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는가

盡忠竭力義當事

온 힘을 쏟아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의에 마땅한 일이니

志濟蒼生不爲名

백성을 건지려는 뜻일 뿐 명예를 위한 것은 아니라네

兵死地含笑入地可也

전쟁은 죽은 것 기꺼이 웃음을 머금고 지하에 가는 것이 옳으리라



죽봉로

의병장 김태원(1870~1908)이 아우 율에게 담긴 글이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자 전국에서 의병들이 일어났다. 나주 문평 출신인 김태원은 함평과 나주를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켜 호남창의회맹소에 합류하며 그 선봉에 섰다.

1907년 12월, 의병장 김태원은 나주, 함평, 장성, 무안 등지를 휩쓸며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1908년 1월 1일, 담양 무동촌에서 '의병 잡는 귀신'으로 악명 높았던 요시다의 수비대를 격파했고, 2월 24일에는 장성 토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당시 민중들은 의병장 김태원의 부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고 한다. 주민들에게 금품을 빼앗는 행위를 금지했고, 뛰어난 지략과 용맹으로 부하들을 이끌어 수 십 차례의 항일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출귀몰하던 김태원도 일본군의 대토벌작전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고, 잇따른 전투로 지병이 악화되었음에도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펼치다 어등산에서 최후를 맞는다.



광주지하철 농성역사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농성광장에서 의병장 김태원을 만났다. 진격하라는 명령과 함께 앞서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은 신출귀몰하며 일본군과 대적하던 모습이다. 현재의 동상은 1975년에 건립된 동상이 훼손돼 1998년 12월에 재 건립한 것으로 의병장 김태원이 죽음을 맞은 어등산을 향하고 있다.

광주시는 의병장 김태원을 기리는 뜻에서 농성지하차도에서 동운고가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의병장 김태원의 호를 따서 죽봉로라 명명했다. 그러나 죽봉로라는 이름의 유래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은 듯 하다.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명당

삼릉단

명망 높은 가문이라 해도 대통령 한 명을 배출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명당으로 알려진 곳이 있다. 바로 삼릉단이다.

북구 오치동에 자리한 삼릉단. 광주의 복산인 삼각산 아래 능안동에 자리하고 있다하여 삼릉단으로 불리게 되었다는데, 여러 번의 전란으로 조상들의 묘소가 손실되자 후손들이 죄스러운 마음에 제단을 마련하여 조상들을 모셨다고 한다.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삼릉단은 나주 금성산을 안산으로, 무등산을 조산으로 한 ‘금계포란형국’에 ‘군왕지지’로 금빛 찬란한 닭이 알을 품었으니 왕이 날 자리라고 한다.



매년 음력 3월 15일이면 삼릉단에 전국 노씨들이 모여 제향을 올린다. 삼릉단(三陵壇)은 광주 노씨의 시조(始祖)와 파조(派祖)를 모신 단소(壇所)로, 광주 노씨의 창성시조인 노수와 그의 아홉 아들을 모시는 제단이 맨 위에 자리하고 있다. 그 아래로 구원재, 경양문, 영모재가 있고, 광주 노씨 일가의 공적을 알리는 수십 개의 비가 늘어서 있다. 그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도 자리하고 있다. 삼릉단은 2008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국 대례에 참석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모룡대

20개의 시문 편액이 걸린 모룡대(慕龍臺)는 노종구가 부친을 기리기 위해 1934년에 지은 정자다. 신도심 개발로 지역문화자원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서서 지금의 자리로 이설했다.

만주사

만주사는 연재 송병선과 제자인 소해 노종용을 모신 사당이다. 연재 송병선 선생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의 난신들을 극형에 처하도록 상소를 올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결했고, 사후 문충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소해 노종용은 연재 송병선, 면암 최익현의 문하에서 의와 도를 익힌 제자로 독립군 군자금 조달로 고초를 겪으면서도 후학 양성에 힘썼다고 한다.

절효사

절효사는 『광주읍지』에 고려조 효자로 실린 노준공을 배향한 사우다. 당시 복제는 백일이었으나 노준공은 삼년상을 치르며 부모의 묘소를 지켰고, 이태조가 벼슬을 내렸음에도 부모를 잃은 불효자가 어찌 국사를 보느냐며 거절하고 후진양성에 힘썼다.

송해당

1860년 송해 노문규 선생이 지은 곳으로 송해 선생은 벼슬을 버리고 서당을 지어 학문을 강론하며 지냈다고 한다. 일제가 그를 회유하려 은사금(恩賜金)을 내렸으나 뿌리쳤고, 이후 삼릉단 설치 등 종사에 열성을 다했다.



모룡대



만주사



절효사



향토사는 지역이라는 나무의 뿌리다

류복현

참으로 다양한 사회활동 이력을 가진 분이다. 지역 언론인으로 시작해 사회변화를 이끄는 개혁가로 활동 하더니 지역의 향토문화와 문화재 발굴에 힘쓰는 향토사학자가 되었다. 활동 영역은 달랐으나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이었다. 향토사학자 류복현의 이야기다.

1944년 광산구 도산동에서 태어난 류복현은 KBS 광주방송총국 보도국을 거쳐 전남매일신문 사회부 기자, 무등일보 사회부장, 광남일보 지역담당 편집 국장을 역임한 언론인이다. 사건 사고를 다루는 사회부 기자로 활동했지만, 류복현은 광주시의 향토 문화와 문화재 발굴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다. 1999년 광산문화원 원장에 부임하면서 그의 향토 사에 대한 관심은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은 광산구 역사문화 해설사 양성, 지역 향토사를 보전하고 계승 하려면 그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가 시급 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지역 주민 50여 명을 선발해 향토사를 교육하고, 면접과 시험을 통해 해설사자격증까지 발급했다.

다음 목표는 용아 박용철 현장사업이었다. 광산구 문화원장 부임과 동시에 제일 먼저 용아 생가와 묘지를 찾았던 류복현은 너무도 허술한 문화재 관리에 실망했다. 이후 수차례 광산구청과 광주시 문화재 담당자를 찾아가 개선을 요구했으나 열악한 재정 탓만 할 뿐이었다.

행정기관을 움직이려면 향토사학자나 문화재 전문가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그는 충북 옥천의 정지용 문학관, 강원 평창의 이효석 문학관, 경북 영천의 이육사 생가와 문학관 등을 답사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용아 박용철 유족을 찾아가 허술한 문화재 관리의 문제점을 알리기도 했다. 이토록 열정을 바친 덕분인지 광주시, 광산 구청과 함께 용아 박용철 현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용아 박용철 생가 복원 등 현장 사업에는 8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고, 담당 직원이 바뀔 때마다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지난한 과정을 이겨내야 했다.





향토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용아 박용철 탄생 100주기인 2002년에는 국비 1억원을 확보해 국제 세미나와 축제, 모바일 전국백일장을 개최하기도 했다. 앞으로 용아 박용철 기념관도 지어야 하고, 축사와 창고도 복원해야하지만 예산 부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향토사학자 류복현에게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국창 임방울 국악축제다. 한 마을에 살았으면서도 성인이 되어서야 국창 임방울의 위상을 알았던 그는 송정 JC회원들과 함께 국악축제 개최에 열정을 쏟았고, 지역축제에 불과하던 행사를 전국적 규모로 키워냈다. 이외에도 류복현 선생이 광산구 향토사 발전을 위해 지역 인물을 발굴하고, 지역문화사업으로 키워낸 사례는 상당하다.

지역 언론인으로 인생 1막을, 향토사학자로 인생 2막을 살아온 류복현 선생이 광주를 위해 한마디를 건넨다.

“의향 광주의 저항정신과 더불어 예술을 만들고 상징적인 역사문화를 만들어후세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곧 광주를 이루는 줄기이고 가지이다.”

제5기 문화관광탐험대가 지나온 길

03.07.(토)	문화관광탐험대 발대식 및 워크숍
03.10.(화)	극락강의 다리
03.12.(목)	도시재생지원센터, 산수동 나무전거리
03.14.(토)	동명동 거리(서석로, 동명로, 동계로)
03.16.(월)	신시와 게스트하우스, 발해그래픽스
03.17.(화)	극락강 나루, 벽진강 나루, 서창 찰고, 광신대교, 서창교, 승용교
03.21.(토)	와룡매, 대명매, 매실농원
03.23.(월)	전남여자고등학교 역사관, 문화쉼터207, 오룡교, 송산유원지, 황룡강의 교량과 구조물
03.28.(토)	상무대영창, 5.18자유공원, 5.18기념문화센터
03.31.(화)	배고픈 다리(학림교)와 원지교, 부동교, 광주천, 가네보 공장
04.04.(토)	삼도교회, 명화식당 장고분
04.06.(월)	옛 광주읍성 풀리
04.07.(화)	광주창고(동창, 북창)
04.11.(토)	지산유원지, 청룡열차
04.13.(월)	광주비엔날레, 광주풀리
04.14.(화)	덕흥마을 느티나무, 동학농민군의 집결지
04.18.(토)	김정호 생가와 거리, 예술의 거리
04.20.(월)	화정동 화담사
04.21.(화)	광주 제3수원지, 북광주역 터 등
04.25.(토)	북동 성당
04.27.(월)	유촌동 석조여래좌상, 광주 배꼽
04.28.(화)	상록나루, 선암 역지
05.01.(금)	불환정
05.02.(토)	KTX 광주 승정역
05.04.(월)	문정공 석탄 이신의, 김봉호 가옥
05.05.(화)	국립 5.18 민주묘지와 이팝나무
05.10.(일)	용두동 지석묘, 가객 정용주, 워크숍
05.12.(화)	양송천 묘역 이팝나무, 두정동 은행나무
05.16.(토)	화정동 불고기 거리
05.18.(월)	우리밀밭, 임류정, 등임사, 불환정
05.19.(화)	쌍내마을 선돌, 용동 선돌
05.23.(토)	일송정
05.26.(화)	송무정, 무등정
06.01.(월)	송호영당과 절골
06.04.(목)	관덕정, 양림동 선교사 나무들
06.07.(일)	본촌동 대원정사
06.08.(월)	회재박물관유허비와 수월당, 윤리사
06.09.(화)	빛고를 어르신들의 휴공간

06.15.(월) 용추계곡, 제2수원지
 06.16.(화) 서구 용두동 105-1, 봉학마을, 화살장인 문양순
 06.20.(토)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 5.18시계탑
 06.22.(월) 농성광장과 죽봉로,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과 상록근린공원
 06.23.(화) 빛고을 박물관
 06.27.(토) 낙암정, 청량재, 오남재, 빙월당
 07.06.(월) 사동 고택(인재 손성규 선생 가옥)
 07.14.(화) 충장로 한복집(아리랑 주단, 아씨 주단)
 07.17.(금) 메이홀과 0518
 07.21.(화) 충장로 양복점(삼영양복점, 정일라사)
 07.25.(토) 중심사 편백숲, 제1수원지
 07.27.(월) 구 광주국군병원, 505보안부대
 08.10.(월) 모룡대, 만주사, 절효사
 08.11.(화) 김희용 목사
 08.17.(월) 삼릉단
 08.19.(수) 경양역터, 광주화교학교
 08.23.(일) 운천지, 오월루
 08.29.(토) 광제사
 09.04.(금) 평동생활역사유물전시관
 09.07.(월) 광주국제교류센터
 09.10.(목) 세계카메라영화박물관
 09.16.(수) 문화관광탐험대 광주견문록V 제작 회의
 09.22.(화) 광주광역시청
 09.29.(화) 지산유원지 향로봉, 제4수원지
 10.01.(목) 전남대학교 주변 5.18사적지, 조선대학교 장항남정보통신박물관
 10.07.(수) 사직공원전망대
 10.10.(토) 김정호 추모음악회
 10.13.(화) 송해당 / 광주견문록V 제1차 편집위원 회의
 10.14.(수) 한국미용박물관
 10.16.(금) 동명동 거리
 10.22.(목) 향토사학자 류복현
 10.22.(목) 광주견문록V 제2차 편집위원 회의
 10.27.(화) 님을 위한 행진곡, 황석영 집터
 10.28.(수) 광주견문록V 제3차 편집위원 회의
 11.06.(금) 광주견문록V 제4차 편집위원 회의
 11.09.(월) 광주견문록V 제5차 편집위원 회의
 11.19.(목) 광주견문록V 제6차 편집위원 회의
 12.04.(금) 문화관광탐험대 광주견문록V 발간기념식





광주의 숨은 문화관광

문화관광타협대

자원을 발굴하는

칼대식 및 워크숍

장소: 신 화관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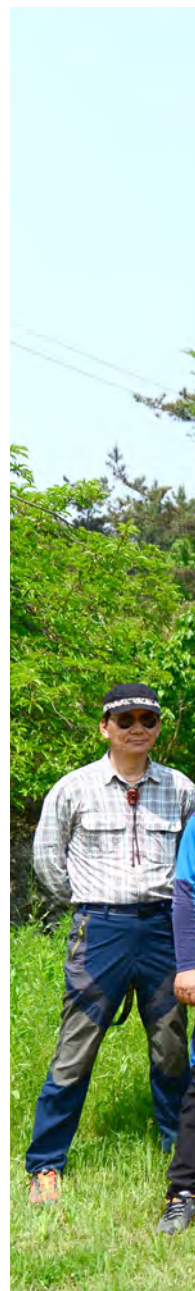














제5기 문화관광탐험대 활동을 마치며



강선철

문화관광탐험대 활동 덕분에
올해도 참 재미나고 멋진 한해를 보냈습니다.



기원종

매화향 가득한 봄부터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 탐방한 결과 문화의 멋과 맛을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김미정

꽃이 지고나면 잎이 보인다니 타자의 시선으로 시작했던 광주문화에
대한 탐험활동이 어느덧 거부할 수 없는 행복 비타민이 되어있음을 발견
했습니다.



김민숙

탐험의 의미는 직접보고, 찾아보고, 몸으로 부딪치는것.
밭길 닿았던 그곳이 좋았고 함께 한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이 좋습니다.



김세진

松茂柏悅!

문화관광탐험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근

내 눈 높이만큼, 내 손바닥만큼밖에 보지 못했던 제가 광주를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광주의 문화를 알리게 되어 행복합니다.



김영신

가깝지만 충분히 잘알지 못 했던 광주를 탐험대원들과 함께 알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매번 설렘이었습니다. 기분 좋은 가슴 떨림을 선물해 주신 탐험대원들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김종신

30여 년만에 다시 만난 내 고향 광주의 장소와 사람들.

그 값진 만남에서 나의 뿌리를 찾았던 2015년 한해는 보람차고 행복했습니다.



김종윤

신명나게 어제의 광주를 탐험했고, 내일의 광주를 그려봤습니다.
모두 문화관광탐험 덕분에입니다.



김화선

역사 기록을 찾고, 광주 곳곳을 누빈 2015년은 어느 해보다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남금희

문화관광 탐험대를 알고 대원으로 활동하고서야 광주사람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내고향 광주를 더욱더 알아가며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서연정

보람은 땀과 비레한 무게일 것입니다.
제5기 광주문화관광탐험대! 보람 있었습니다.



양다연

현재에 가려 보이지 않는 과거를 찾아 나섰던 탐험이 힘들었는데,
광주견문록을 보니 뿌듯합니다.



임주화

내사랑 광주의 매력을 발굴하고 꼼꼼하게 스토리텔링하면서 모든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놀랍고 뜨거웠던 광주의 끈질긴 생명력, 광주를 만들어 낸 사람들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조미숙

시작할 때 마음으로 끝까지 갔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챙겨주신 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추현경

흔히 보는 강, 흔히 보는 산, 흔히 보는 들꽃,
흔한 것으로 지나쳤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은 광주문화관광탐험이었습니다.



한진수

“5기 탐험대 오진 꿀 밥시다!”를 외치며 출발하곤 하던 일이 추억으로 떠오릅니다. 탐험대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희

도 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과 같이 탐험 활동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광주의 숨겨진 문화와 역사에 대해 알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어 즐겁고 행복한 탐험이었습니다.

문화관광 탐험대의 광주견문록Ⅴ

발 행 처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구동)
062. 670. 7400

발 행 일 2015년 12월 4일

발 행 인 서영진

글 · 사진 제5기 문화관광탐험대
강선철 기원중 김미정 김민숙 김세진 김양근 김영신
김종신 김중윤 김화선 남금희 서연정 양다연 이승현
임주화 조미숙 추현경 한정희 한진수

구성작가 최경지

편집위원 김미정 김세진 김중윤 서연정 한진수

팀 장 송진영

담 당 남상철 한영주

만 든 곳 주식회사 성문당
61486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16번길 4(남동)
062. 222. 2555

ISBN 979-11-86088-04-3

ISBN 978-89-968403-0-5 (세트)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5032351)

문화·관광
탐험대의
광주전문록Ⅴ



비매품



ISBN 979-11-86088-04-3

ISBN 978-89-968403-0-5 (세트)